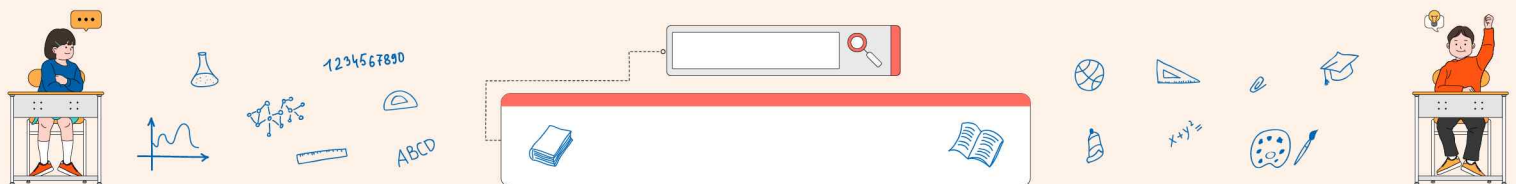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6
4	讲义	53
5	퀴즈	72
6	토론	76
7	자료	78



학습안내

01

과목소개

<한국경제와 학교 교육>은 한국의 학교 교육의 형성, 확대 및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이 과목은 수강생들에게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인적자본의 축적을 이끌어 낸 학교 교육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현재 한국 교육이 직면한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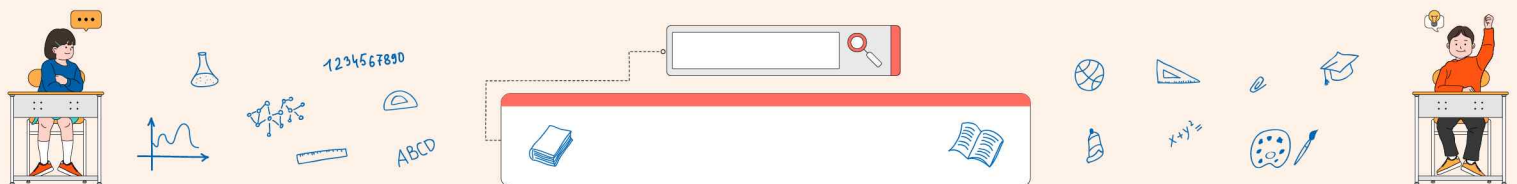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학습목표

- (1) 한국의 정규 초등, 중등, 고등교육 제도와 비정규 학교 교육의 형성, 확대, 발전과정을 통해 인적자본 축적의 기틀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이해한다.
- (2) 교사, 재정, 여성의 측면에서 한국 학교 교육이 지닌 역사적 경험과 특수성을 살펴보고, 한국 학교 교육의 발전 과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 (3) 사교육, 평준화, 학업성취도와 관련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한국 학교 교육의 직면한 과제에 대해 탐구한다.

03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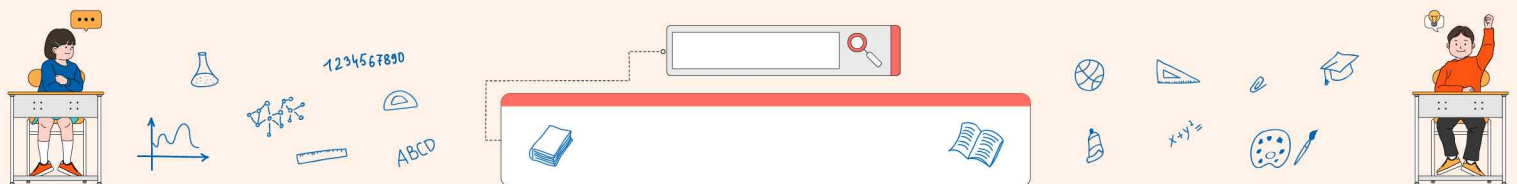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흔히 한국은 부족한 자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고 이야기한다. 가난한 식민지 국가였던 한국이 독립 후 전쟁을 겪으며 황폐화되었지만 결국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데에는 우수한 인적자본의 역할이 상당했다. 이 강의에서는 우수한 인적자본의 축적을 가져온 한국 학교 교육의 경험을 주제별로 학습한다. 이 강의가 수강생들이 한국 학교 교육 성공 사례의 배경, 원인, 결과는 물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명암과 현재 남겨진 과제에 대해 더욱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04

주차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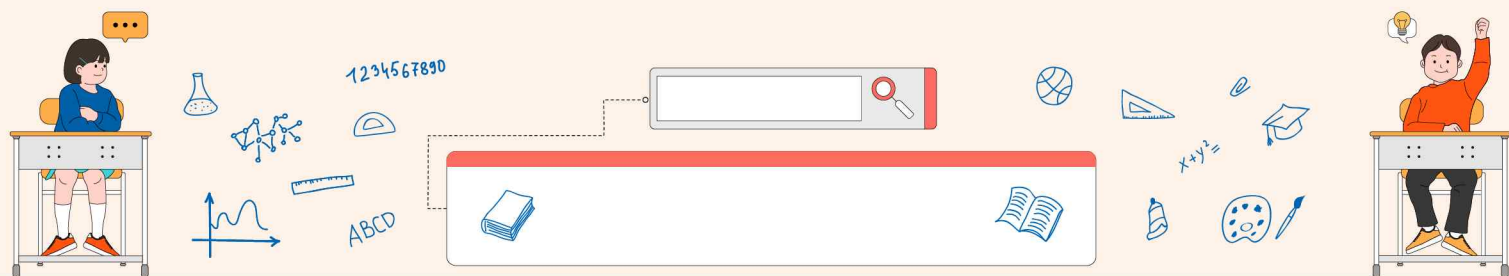
1주차	한국의 학교 교육
2주차	한국 학교교육의 형성
3주차	유아 및 초등교육
4주차	중등교육
5주차	고등교육
6주차	교원
7주차	교육재정
8주차	여성
9주차	사교육
10주차	학교 평준화
11주차	시험성적자료로 살펴본 한국교육의 현황과 과제
12주차	학교 밖 학교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1

주차

한국의 학교 교육

1-1

학교 교육과 경제발전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와 학교 교육> 강의를 맡은 고선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국경제와 학교 교육 강좌에서는 한국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교육이 맡아 온 역할을 살펴봅니다.

흔히 한국은 부족한 자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인적자본을 길러내는 주된 역할을 학교 교육이 수행했습니다.

앞으로 이 강의에서 한국의 학교 교육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그리고 한국경제의 발전과 학교 교육의 변화는 어떻게 서로 맞물려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이 어떻게 형성되고 확대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과제에 직면했고 그 과제를 어떻게 풀어왔는지가 강의의 주요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국가, 즉 정부의 역할에 주목할 계획입니다. 인적자본은 경제성장의 밑거름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읽기, 셈하기를 익히는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보편적인 확대와 발전 과정에서 정부는 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경제성장의 원천으로서의 인적자본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교육 정책을 통해 기여한 경험을 중심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먼저 학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교란 무엇일까요? 학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교육을 받는 공간이자 제도입니다. 교육, 즉 무언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이 꼭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언제부터인가 학교 교육은 대표적인 정규 교육의 형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학교 교육, 즉 여러 명의 학생들을 한 공간에 모아 함께 교육하는 방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 지역사회 또는 정부가 공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학교는 정규 교육의 전형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더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성과를 국가와 경제 전체의 과실로 거두고자 하는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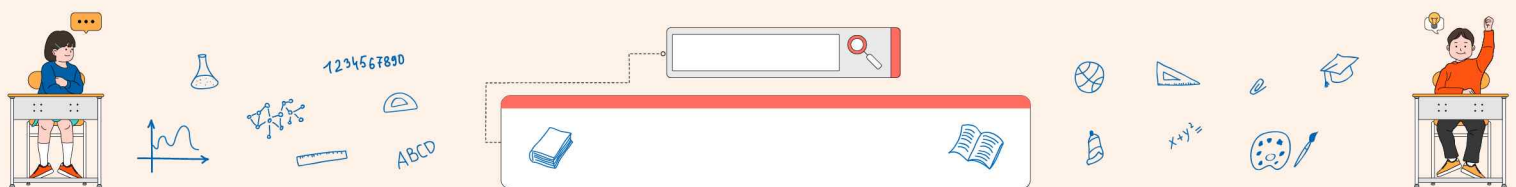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지방 또는 중앙 정부는 세금으로 거둔 수입으로 학교를 짓고, 교원을 채용하고, 학교를 운영합니다. 여력이 되면 나이에 맞는 모든 이들을 학생으로 받아들였고,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통해 실시하는 정규 교육이 더욱 발전할수록 학교의 문은 더 넓게 열렸고, 결국에는 모든 나이에 맞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정규 학교 교육의 출발점은 초등교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섯 살 내지 일곱 살 정도의 아동들을 모아 읽기, 쓰기, 셈하기를 가르치며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학교를 세우고 모든 아동에게 읽기, 쓰기, 셈하기를 가르치며 달라졌습니다.

젊은이들중에서 비문해 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읽고, 쓰고, 셈할 수 있게 되자 기술 혁신이 빠르게 전파되고 생산성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근대적 경제성장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 개발이 선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혁신을 생산 현장에서 충분한 인적자본을 갖춘 노동력을 활용하여 펼쳐낼 수 있어야 비로소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보편적 확산과 비문해 인구의 비중 감소는 초기 산업화의 전제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근대 이후 경제성장과 기술 진보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읽기, 쓰기, 셈하기를 넘어서 더욱 심화된 학습의 기회를 찾도록 이끌게 됩니다. 기존에 엘리트 중심 교육기관이었던 고등학교가 먼저 대중 교육기관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더 많은 아동 청소년에게 심화 과정의 글쓰기, 읽기, 수학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과학과 지리, 철학과 체육 교육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계승하며, 나중에 고등 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을 펼치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기술과 전문 지식들을 가르쳐 전문가와 기술자를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되는 전문계, 실업계 고등학교가 분화되어 발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부터는 대학 교육과 대학원 교육도 점차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였습니다. 아직 세계 모든 국가들에서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고등교육에 진학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기 이전부터 이미 거의 모든 청소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 역시 최근 70%가 넘습니다.

이렇듯 학교 교육이 발전해 온 과정은 경제의 발전 과정과 긴밀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학교가 새로 생기고, 정해진 나이가 되면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진학하여 교육을 받고, 정부의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이 줄어드는 과정은 기술 진보, 그리고 경제성장과 늘 맞물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인적자본을 키운 결과는 다시 경제성장과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동 청소년과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 교사의 헌신, 독지가들의 후원도 있었고,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 선도와 지원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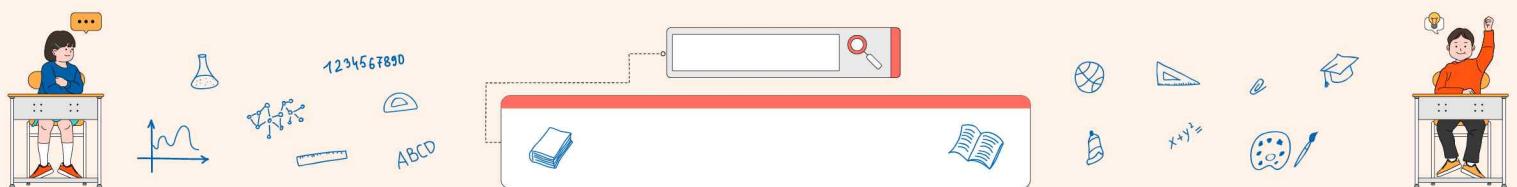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앞으로 이 강의에서는 한국에서 학교 교육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한국경제의 발전 과정과 연계하여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첫 주에는 한국 교육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그다음에는 한국 학교 교육의 형성 과정을 개관합니다. 이후 유아 및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나누어 각급학교 교육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교육제도의 핵심 틀을 구성하는 교원과 재정에 대해 각각 한 주씩 토의하겠습니다. 이 후에는 한국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주목받아온, 또는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주제들인 여성, 사교육, 평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1주차에는 평가 시험에 대해 살펴보고, 교육성과를 검토해 봅니다. 마지막 12주차에는 초·중·고 및 대학의 정규 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 즉 학교 밖 학교들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강좌의 주요 내용 및 앞으로의 진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선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한국 교육의 현주소 1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학교 교육과 경제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가 어떻게 설계되었고, 무엇을 주목하며, 어떠한 주제에 대해 다룰 것인지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유·초·중등 학교 교육이 세계적으로 어떠한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 초·중등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취학률은 초등학교 98%, 중학교 97%, 고등학교 92% 수준입니다. 취학률은 각급학교 재학생의 수를 학령인구로 나눈 값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실제 나이는 종종 학령인구보다 높기도 하고 더 낮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취학률은 학령인구 이외의 사람들도 분자에 포함되어 100%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해 중 어느 시점에 통계를 작성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학령인구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학업중단,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재학생 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차는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취학률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취학률보다 낮은 이유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1960년대 이전부터 이미 100%에 가까운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취학률은 약 1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1960년대부터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완전 취학에 가까운 수준을 이룬 건 중학교의 경우 1970년대 말, 고등학교의 경우 1990년대 말입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잘 졸업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현재 의무교육으로 모든 학생들이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 이하, 고등학교는 1%대로 낮은 편입니다.

고교 졸업생들도 대부분 대학, 대학교 등 고등교육 과정의 상급학교로 진학합니다. 각 연도별 고교 졸업자의 진학률은 70%가 넘습니다. 재수생과 취업 후 늦게 진학하는 학생들을 고려하면 동일한 코호트에서 실제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더 높습니다.



한국의 교육성과는 성인 인구의 교육 이수 수준을 보아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OECD 교육지표 자료를 보면 2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비중 중 중졸 이하 학력의 비율은 11%, 고교 졸업자 비율은 39%입니다. 반면 2년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이수 경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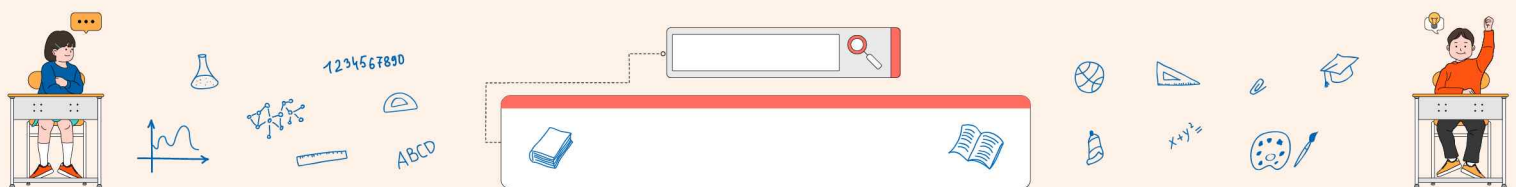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중졸 이하 인구 비중은 OECD 평균이나 EU22 평균보다 더 낮습니다. 고졸자 인구비중도 OECD, EU22는 물론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낮습니다. 고등교육 이수 인구 비율은 미국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습니다. 물론 나라들마다 교육제도와 환경이 서로 크게 다르므로 국가별로 단순히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0세기 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참혹한 한국전쟁을 겪었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인구의 교육 이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다는 점은 그동안 한국 교육이 빠른 속도로 양적 성장을 이루어 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인구의 교육 이수 수준을 보면 한국 교육의 현재 성과를 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세기 후반, 한국전쟁 이후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 교육성과의 편차도 크게 나타납니다.

2020년 기준으로 25세부터 34세까지의 연령층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2년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청년의 비율은 이제 70%에 육박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률이 70%를 넘어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학교 교육의 품질을 나타낼 수 있는 주요 지표 중 한 가지는 학생 한 명을 위해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보더라도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교육비는 정규 교육을 받기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이 지출한 모든 금액을 합산한 값으로 학부모의 수업료 지출을 포함합니다.



사실 공교육비라는 용어보다는 학교 교육 총지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OECD 교육지표 자료에 따른 2018년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초등교육 12,535달러, 중등교육 14,978달러에 달합니다. OECD 평균은 초등교육 1인당 9,550달러, 중등교육 11,192달러입니다. EU22 평균도 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국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한국보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더 많은 국가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초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한국보다 더 많고, 중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한국보다 근소하게 작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OECD 평균 수준에 가깝고,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수준보다는 낮습니다.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다른 국가보다 다소 낮게 나타납니다. 한국의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8년 기준 11,290달러입니다. 이 금액은 OECD 평균인 17,065달러와 EU22 평균인 16,986달러보다 작습니다. 미국의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인 19,309달러와 일본의 34,036달러보다도 더 작습니다.

중종 일부 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들어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진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보다 더 낮은 점을 들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수준이 과소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를 해석하는 데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국가 간에 비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과 달리 고등교육은 학령인구 대비 학생 비율이 크게 다릅니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같은 시설과 교육환경을 조성했지만,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면 1인당 지출비용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등교육 투자 수준에 대해 검토할 때에는 고등교육이 얼마나 보편화되었는지 아니면 소수 엘리트만을 위한 교육인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통계에 포함되는 공교육비가 실제로 어떤 내역들을 합산한 값인지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비용에는 단순한 교육비용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관련 비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OECD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 즉 PISA의 한국 성적 수준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PISA, 국제학생 평가 프로그램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규 학교에 재학 중인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학습 성과를 시험 형태로 평가합니다. 시험 성적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평균 성적은 읽기, 수학, 과학 성적 모두 OECD 국가를 포함한 전체 참여국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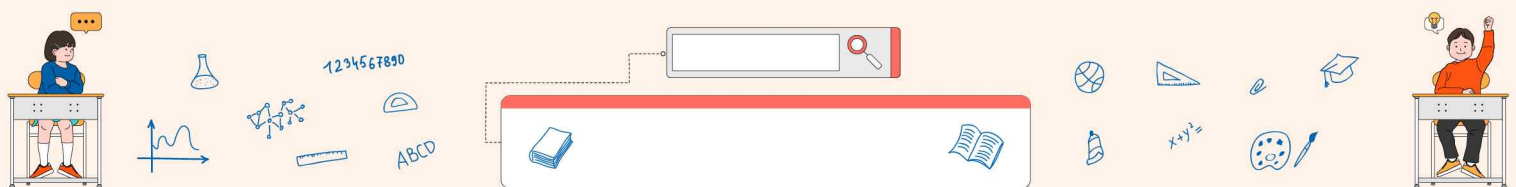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2018년 시험에서 OECD 회원국 중 읽기는 2~7등, 수학은 1~4등, 과학은 3~5등이었습니다. 전체 참여국으로 확대하더라도 읽기 순위는 6~11등, 수학 순위는 5~9등, 과학 순위는 6~10등이었습니다. 총 79개 참여국에 대한 결과입니다. 3년 주기로 실시된 이전 시험들에서도 한국은 늘 높은 평균성적을 보이며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의 채용이 중요합니다. 우수한 교원을 뽑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교사의 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더 우수한 교사가 교육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OECD 교육지표 자료는 한국 초·중·등 교사 급여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020년 기준으로 15년 경력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 금액을 살펴보면, 한국은 초등학교 교사 59,103달러, 중학교 교사 59,165달러, 고등학교 교사 65,248달러였습니다. OECD 평균과 EU22 평균 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교사 법정급여 수준보다는 낮지만, 일본의 교사 법정급여 수준보다는 더 높았습니다.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보면 한국의 경력 15년차 교사 연간 급여액이 OECD 평균보다 초등학교의 경우 약 23%, 고등학교의 경우 약 12.5% 더 높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교사라는 직업이 갖는 위상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높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질이 우수하거나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이 교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투입과 성과를 나타내는 몇 가지 지표들로 살펴봤습니다. 한국 교육은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초·중·등교육을 이수하고, 이 중 70% 이상이 고등교육을 마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의 읽기, 수학, 과학 시험 성적도 전세계에서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는 정규 학교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배경으로 이뤄냈습니다. 한국의 정규 학교 교육에 대한 투자 수준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교원의 급여 수준 역시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긍정적인 점들의 이면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한국 교육의 현주소 2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투입과 성과를 나타내는 몇 가지 지표들로 살펴봤습니다. 한국 교육이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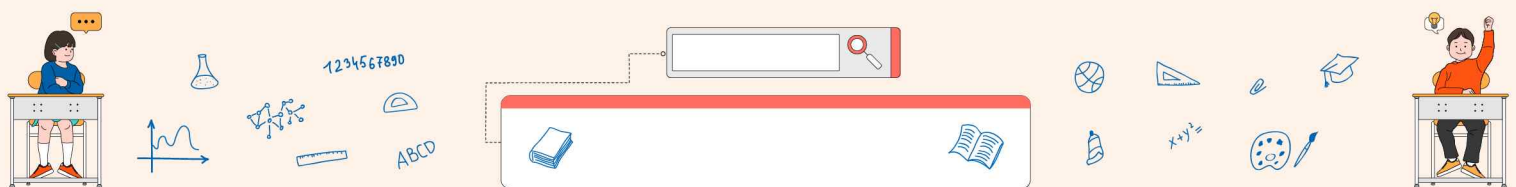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하지만 한국 교육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한국의 정규 학교 교육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고, 여러 개의 개혁과제에 당면해 있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종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한국 교육의 이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교육이 당면한 문제점 또는 과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입시 부담과 높은 사교육비 부담은 자주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시간이 과도하고, 교육이 입시 교과목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흔히 나옵니다.

투입과 성과 지표에서 학생의 사회경제 배경에 따른, 또는 지역과 학교간의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도 발견됩니다. 학교 이탈 청소년이 증가하고 학교 교육현장은 붕괴중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교육입니다. 한국에서는 교육을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나누어 부릅니다. 정규 학교 교육이 공교육입니다. 사교육은 정규 학교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비정규 교습활동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학원, 과외, 방과후 학교 등이 사교육에 포함됩니다.

한국의 공교육과 사교육은 학교를 설립 주체에 따라 나누어 일컫는 영어 표현인 public education과 private education의 구분과는 전혀 다릅니다. 영어의 public education은 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립학교의 교육, private education은 민간에서 독립적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사립학교 교육을 보통 뜻합니다.



정부의 세금을 통한 지원이 공립학교에 집중되고, 사립학교는 재정의 측면에서도 정부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더 의미를 갖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의 공교육은 정규 학교 교육이므로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함께 포함됩니다. 한국의 중등 사립학교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에서 정한 표준 교육과정을 따르는 등 운영 측면에서도 상당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한국의 공교육은 영어 표현으로는 public education과 private education을 모두 포함하는 formal education에 가깝습니다. 사교육은 굳이 영어로 표현해야 할 때는 입시학원 중심이라는 점에서 cram schooling, 사적인 보충수업이라는 의미에서 private tutoring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국은 사교육 참여율이 매우 높습니다. 전체 초중고교 재학생 중 약 3/4가량이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80% 이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다소 감소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 과정이 오후 두 시 무렵부터 일찍 끝나는 반면, 이 무렵부터 맞벌이 부모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저녁 시간까지의 보육에 대한 수요는 상당하여 방과후 학교,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등을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학, 영어 등 학교 교과과정을 보충하는, 또는 선행학습하기 위한 학원, 과외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사교육 참여율은 여전히 64.6%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당 참여 시간은 평균 6~7시간이고,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 원에 가깝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1인당 평균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월 40만 원, 중학생 월 53만5천 원, 고등학생 월 64만9천 원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상당하고, 가정환경이나 가구 소득에 따라 사교육 수준이 다르며, 이러한 차이가 다시 교육성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이 한국 교육에 가져오는 문제는 단순히 비용 부담에만 놓여있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들에게 사교육의 대부분은 시험 성적을 높이기 위한 수학, 영어, 국어, 과학 등의 일부 교과교육입니다.



처음에는 학교 교육을 보조하기 위한 보충학습이었다면, 이제는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배우는 선행학습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에서 2011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76%, 중학생의 83%, 고등학생의 69%가 수학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년에서 배울 내용을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한두 해 또는 3년 전에 학원에서 배웠고, 지금은 내년 또는 2~3년 뒤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학원에서 미리 배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학교 밖에서 미리 공부한다면 교육성과도 더 좋을까요?

시험 성적 자료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11년 이후 최근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 중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기초학력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수학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10%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선행학습 비율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서로 직접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이 수학, 영어 등 일부 교과교육에 투입하는 시간과 자금도 증가했지만, 그만큼 교육성과가 나아졌는지 의문입니다.

학생들의 시간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학, 영어 공부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독서, 체육, 여가활동 시간과 수면시간이 줄어듭니다. 학원을 가거나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교육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새로운 무언가를 교육하는 통로가 아니라 정규 학교 교육의 일부를 선행학습하거나 되풀이하거나 보충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과연 바람직한 교육의 한 형태일지 자연스레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 사교육의 성과는 어떠한지,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OECD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의 읽기능력 평가 결과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한국 학생들의 2018년 PISA 읽기영역 평균 점수는 514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봐도 높은 점수입니다. 하지만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에서는 정답률이 25.6%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 학생들의 공교육과 사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 경험의 성과가 과연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제 의무교육이므로 학업 중단에 대한 걱정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고교 학업중단율은 2015년까지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2015년부터 최근까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비율 자체는 1%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충분합니다.

특히 학업 중단 비율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학업 중단율도 높은 편입니다. 학업 중단은 여러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학업 중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격차의 확대에 대한 우려도 큼니다. 교육격차는 지역 간 교육여건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특성 차이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 자료를 보면 부모의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4년제 대학 진학 비율이 높고, 소득분위가 낮은 경우에는 대학에 가지 않는 비율이 크다는 점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부모의 소득이 낮으면 자녀의 교육투자 수준이 감소할 수 있고, 이는 교육격차의 확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험 성적에서도 비슷한 점이 발견됩니다. 한국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응시하는 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살펴보면, 고소득분위 가구 자녀의 경우 수능성적이 상위 등급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저소득분위 가구 자녀의 경우에는 수능성적이 낮은 등급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큼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비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소득에 따른 교육성과의 차이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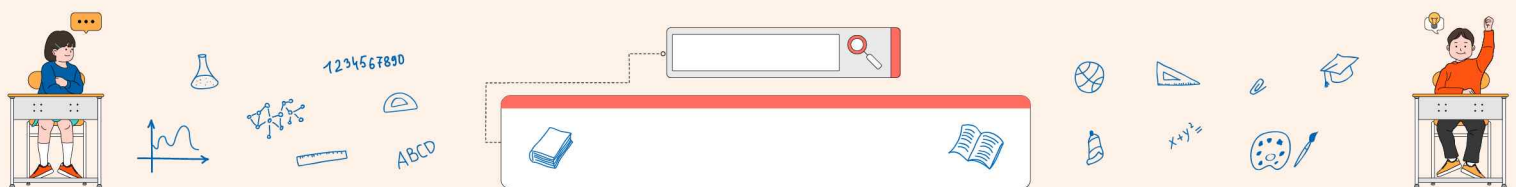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이러한 개인 간,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가 존재하는지, 더 확대되고 있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현재 한국 교육의 중요한 과제 중 한 가지입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이후로 한국의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큼니다.

한국 교육의 또 다른 한 과제는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입니다.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인 학생을 보통 다문화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초중고교의 다문화학생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46,954명이었던 다문화 학생 수는 2021년에는 160,056명으로 세 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2021년 기준 3%입니다. 다문화학생의 다수는 국내 출생자로 결혼 이민자 가정의 자녀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에서 이주해 온 학생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정규 교육의 기회를 다른 학생들과 다르지 않게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적절히 지원해 나가야 하는 점은 한국 교육이 당면한 과제 중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육이 당면한 문제점 또는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교육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 학업 중단 학생의 최근 증가추세, 개인,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의 문제,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과제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현행 교육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

한국의 교육제도 1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 교육이 당면한 문제점 또는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로 이어지는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역사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잡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교육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만 3세부터 6세까지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간입니다. 대표적인 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들 수 있습니다. 만 7세부터 12세까지 6년간은 초등교육 기간이고, 초등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초등학교는 대부분 공립 초등학교이고, 일부 국립 초등학교와 사립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국공립 초등학교에서는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만, 사립 초등학교는 정부 지원 없이 학부모가 수업료 등의 학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 13세부터 15세까지의 3년간은 전기 중등교육 기간으로 중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이고,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중학교 졸업 이후에 고등학교까지 진학합니다. 고등학교는 만 16세부터 18세까지 3년간 후기 중등교육을 담당합니다. 한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립 중고등학교도 국공립 중고등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정규 교육체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립 중고등학교의 **교사** 인건비도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중학교 교육의 경우 공립 사립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어떤 학교에 가게 될지도 보통 임의로 지정되는 형태로 결정됩니다. 고등학교도 비슷합니다. 한국의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2021년부터 무상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아교육은 교육과 보육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유아의 보육은 부모가 직접 할 수도, 조부모 등 다른 가족이나 아니면 고용된 보육자가 가정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밖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한국의 보육기관은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에 설립된 공립 어린이집, 개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 사업체에서 직원들의 자녀를 위해 설립해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 대상은 어린이집마다 다릅니다. 어떤 어린이집은 출생 후 수 개월이 지난 0세 영아부터 보육합니다. 어떤 어린이집은 취학 직전의 만 6세 아동까지 보육합니다. 어린이집은 한국에서 제도상으로는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고 보육기관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육과 유아교육을 하나로 통합하고, 보육기관을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입니다. 한국의 유아교육법은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만 3세 이후부터 다닐 수 있습니다. 달력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만 4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해부터 유치원을 다닐 수 있습니다.

통상 유치원의 학령을 만 4세, 5세, 6세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만 4세부터 유치원을 다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만 4세에는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또는 가정 보육을 하다가 만 5세 또는 만 6세가 되어 유치원을 다니기도 합니다.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 보육만을 하거나 어린이집을 만 6세까지 계속 다니기도 합니다. 유치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설기관인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영어학원 종일반을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 기준으로 유치원 취학률은 약 5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유아들도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사설 기관에 재원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한국에서는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3년간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유아교육기관이나 보육기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에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운영지원비와 방과후활동비 등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즉, 한국의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이지만,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서도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는 공식적인 유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유아교육에 초점을 둔다면, 어린이집은 보육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두 기관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누리과정을 운영한다는 공통점도 있으므로 유보통합, 즉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통합하려는 시도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데로 이제 유치원을 통한 유아교육으로 보육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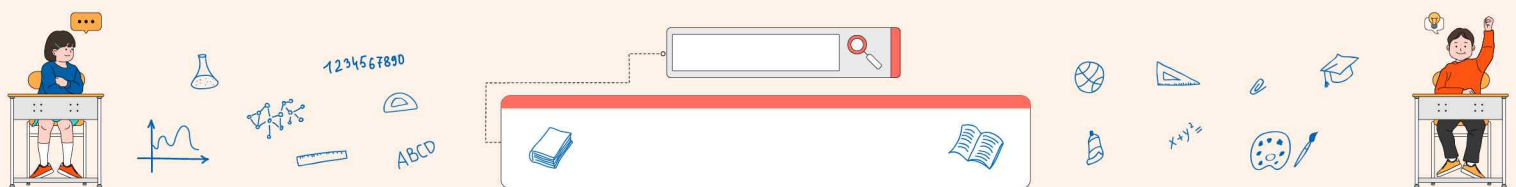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한국에서는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학령을 만 7세부터 12세까지의 6년간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만 7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해에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다니기 때문에 입학일 기준으로는 만 6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초등학교 학령을 6세부터 11세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예전에는 만 6세가 되면 같은 해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새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1월이나 2월에 태어난 아동들은 전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태어난 아동들과 함께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런 1월 및 2월생들을 빠른 연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2003년부터 만 6세가 된 해의 이듬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같은 달력 연도에 태어난 아동들이 같은 학년에 속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입학 제도가 있어서 현재도 1년 일찍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국의 초등교육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지만, 식민지기를 거치며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식민지기에 한국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교육기관은 보통학교라고 불렸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인 학생들을 위한 초등교육기관으로 소학교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분리 교육은 식민지기 동안 계속 이루어졌지만, 중간에 보통학교의 명칭은 일본인 학교와 같은 소학교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다시 국민학교로 바뀝니다. 국민학교라는 이름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다가 1996년에 다시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식민지기부터 현재까지 입학 연령과 교육 기간도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한국 초등학교는 대부분 공립 초등학교이고, 소수의 국립 초등학교와 사립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고 무상으로 지원되지만, 사립 초등학교의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설립한 공민학교라는 교육기관도 있었습니다. 초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공민학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 13, 14, 15세 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중학교는 해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식민지기까지 중등교육은 전기와 후기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중등교육은 고등보통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식민지기의 중등교육도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분리교육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일본인들을 위한 중등교육기관의 이름이 중학교였습니다.

고등보통학교의 이름은 1938년에 일본인을 위한 학교와 같은 중학교로 바뀝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미군정기에 전기 중등교육기관인 초급중학교와 후기 중등교육기관인 고급중학교로 개편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초급중학교는 4년제 중학교, 고급중학교는 3년제 고등학교로 변경되고, 한국전쟁 이후 중학교가 3년제 과정으로 다시 바뀌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학교는 처음에는 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시험을 통한 경쟁은 치열해졌고, 학교 간에 우열 순위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1969년부터 중학교 입학시험이 폐지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추천을 통해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하는 방식이 실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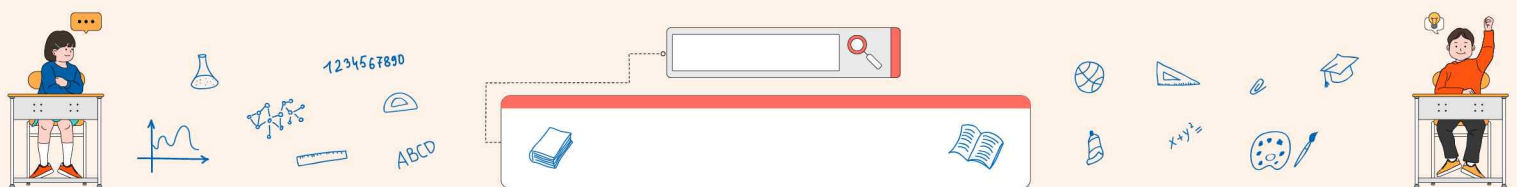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 및 벽지 지역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에 읍면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05년부터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제도의 확대 과정은 사실 무상교육 확대 과정이었습니다. 이미 의무교육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대부분의 학령 청소년들은 중학교에 진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중학교 중 약 20%가량은 사립 중학교입니다. 사립 중학교와 공립 중학교의 교육은 국가 교육과정을 따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립 중학교에서도 공립 중학교와 같이 무상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학생들은 공립 중학교와 사립 중학교 중 선택하여 진학할 수 없습니다. 어떤 중학교에 진학할지는 거주지로부터의 거리와 추천을 통해 결정됩니다.



일반 중학교 이외에도 2013년부터 원격교육기관인 방송통신중학교가 설립되어 운영중입니다. 초
등교육과정의 공민학교처럼 중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고등공민학교도 있었으나 중학교
교육이 보편적으로 확산되면서 대부분 사라지고 이제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제도를 개관하고, 유아교육, 초등교육 및 전기 중등교육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후기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한국의 교육제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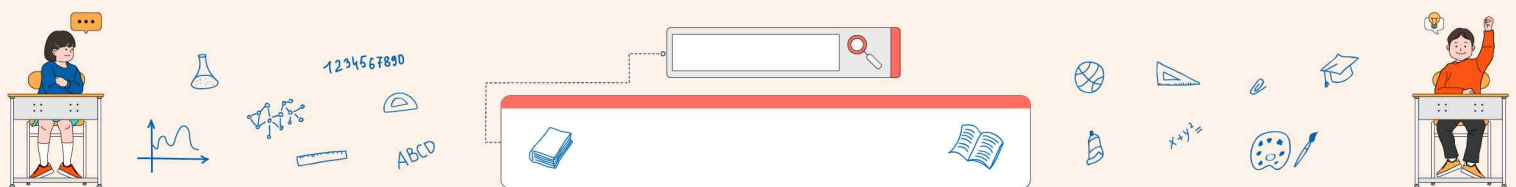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의 교육제도를 개관하고, 유아교육, 초등교육 및 전기 중등교육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후기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부터 이후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제도가 역사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와 같이 변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는 만 16, 17, 18세 청소년들이 다니는 후기 중등교육기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정기에 전기 중등교육과 후기 중등교육이 나누어졌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3년제 고등학교가 나타났습니다. 한동안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위한 인문계 고등학교와 기술 등 전문교육과 취업을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로 나누어졌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2011년부터는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의 네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과거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로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 인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기존의 실업계, 전문계 고등학교들과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를 포함합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과학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도 불리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율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있으며 학교 단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중등교육의 기회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기부터 해방 이후 한동안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만 중등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별로 지원하여 선발하는 방식이었고, 학교 간에 서열이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명문중학교, 명문고등학교가 나타났고, 명문 중학교와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고등학교 입시는 처음에는 학교별 전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며 연합고사와 체력검사로 전체 정원을 선발한 뒤, 학군별로 추첨하여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고등학교 입학 정원보다 줄어들면서, 이러한 선발 방식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1998년 서울을 시작으로 고입선발고사가 점차 폐지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사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는 중학교 성적과 학생의 개인 특성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지역 교육감이 배정하는 일반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등학교의 약 40%는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역시 공립 또는 사립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별도로 지원하여 선발하는 학교가 아니라면 어떤 학교에 다니게 될지는 지역별 배정 규칙에 달려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실제 거의 모든 고등학교 학령인구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는 오랫동안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징수했습니다.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외에도 규모가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각종 교육기관들이 후기 중등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원격교육기관으로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 공민학교와 중학교 과정 고등공민학교에 상응하는 학교로 고등학교 과정에는 고등 기술학교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명무실합니다. 한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검정고시 제도를 통해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이 있습니다. 대학은 4년제 고등교육기관으로 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 전문대학은 2년제 또는 3년제 교육기관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이전에도 조선 시대의 성균관, 1895년 설립된 법관양성소, 1899년 설립된 의학교 등이 있었으나, 식민지기에 전문학교와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현재와 같은 고등교육 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후 식민지기의 전문학교들은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었고, 경성제국대학은 몇 개의 전문학교와 통합되어 국립 서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이후 2년제 초급대학, 전문학교, 3년제 간호학교 등이 생겼다가 1979년에 전문대학으로 통합 개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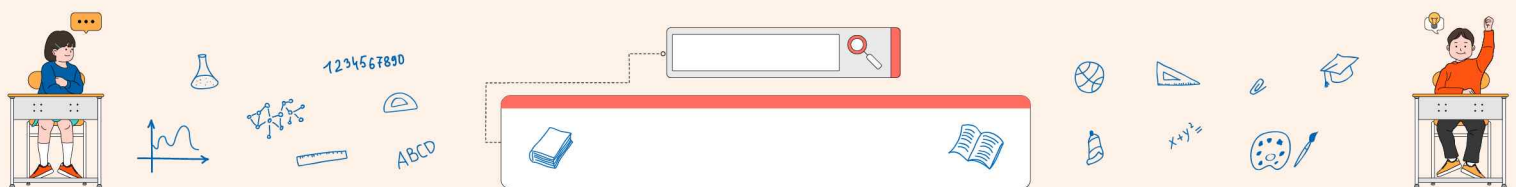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학교는 식민지기부터 중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 과정의 3년제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후 1960년대에 2년제 교육대학으로 승격되었고, 1980년대에 다시 4년제 대학교로 개편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도 점차 확대되었고, 대학원만을 운영하는 대학원대학도 생겼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에는 154개 전문대학, 227개 대학, 45개 대학원대학이 운영중입니다. 대학 부설 대학원도 1,129개가 있습니다.

한국 고등교육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사립학교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일반대학 190개교 중 80% 이상인 156개교가 사립대학입니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전체 134개교 중 단 9개교만이 국공립 학교이고, 93%에 해당하는 125개교가 사립 전문대학입니다.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이외에도 한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1972년에 설립된 방송통신대학교도 있고, 19개의 사이버 대학, 2개의 원격대학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산업대학, 기술대학, 사내대학, 전공대학, 기능대학 등도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대학 과정의 각종학교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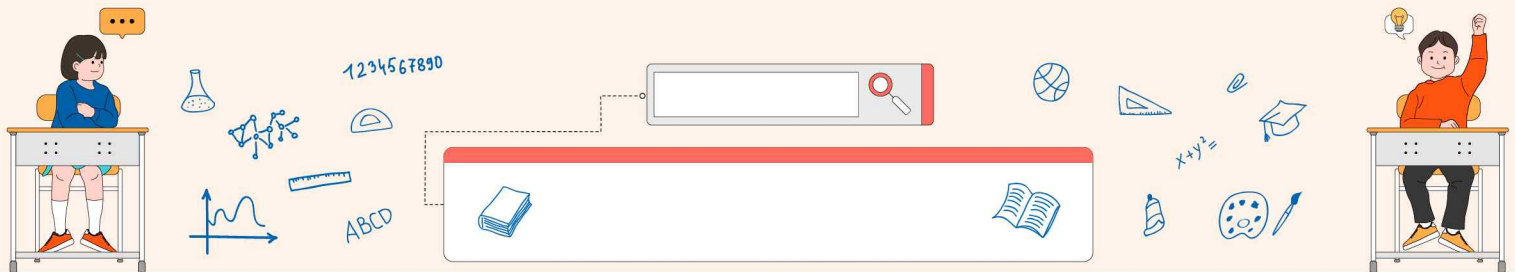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제도 중, 고등학교 과정과 그 이후의 고등교육 기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경제와 학교 교육> 첫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이제 한국의 학교 교육에 대한 개관이 끝났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와 같은 한국 학교 교육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1

Korea's School Education

1-1

Korean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Korean Economy and School Education." My name is Go Sun. The "Korean Economy and School Education Course" will look into the role Korean education has played i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Some say that Korea has achieved a miracle of rapid economic growth based on its excellent human resources despite its scarce natural resources. Korean school education played a major role in fostering such human resources.

This course will explore how Korean school education has changed, and it will examine how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and changes in Korean school education have affected each other. Furthermore, it will look at how Korean school education has been formed and developed and how it has overcome the challenges it has faced in the process.

In particular, this course will pay attention to the role of the state, that is, the Korean government. Human capital serves as the basis of economic growth. That is why every country worldwide is working to promote school education. Governments always play a leading role in the process of universal extension and development of education, from elementary education, where students learn basic skills such as writing, reading, and counting, to secondary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In this course, I will also focus on the Korean government's contributions and education policies in the process of accumulating human capital,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growth.



Let's think about school. What is school? A school refers to a place and system where many students gather and receive education together. Education, that is, teaching and learning something, can consist of many forms. Education does not have to be done only through schools. However, at some point in human history, school education took its place as a representative form of formal education.

When it comes to school education, the method of gathering several students in one place and educating them together has been used for a very long time. Since the modern age, when local communities and governments began to provide public education, schools have been the model of formal education. This can be seen as a result of the desire to educate more people and reap the consequences of education as fruit for national and economic development.

Local or national governments build schools, hire teachers, and run schools with revenue from taxes. When government finances are sufficient, they accept all students who are ready to go to school, and when the finances are not sufficient, they select some students. As formal education through schools develops further, schools can provide students with more opportunities to be educated in schools. Ultimately, schools evolve to provide formal education to children and young students in their age group.

Regular schooling begins with primary education. For example, the Korean government began regular education by gathering children between six and seven and teaching them to read, write, and count. A long time ago, many people in Korea could not read or write. This is simply because they didn't have enough opportunities to learn. However, this landscape started changing when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schools and taught all children to read, write and count.



Among young people, the illiterate population began to decline rapidly. The beginning of Korean regular education allowed more people to read, write and count, thereby rapidly spreading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greatly increasing productivity. The modern economic growth started by the Industrial Revolution accelerated fur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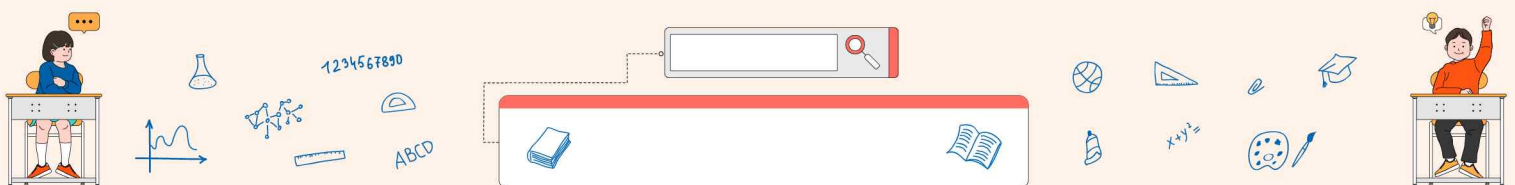
The Industrial Revolution led to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However, these technological innovations could lead to rapid economic growth only when a labor force with sufficient human capital can be utilized at the production site. So, the universal spread of schooling and the declining share of the illiterate population were prerequisites for early industrialization.

Economic growth and technological advances after the modern era led more Koreans to seek more educational opportunities beyond simple reading, writing, and counting. High schools, which would train elites in Korea, were first transformed into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government provided more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dvanced courses in writing, reading, and counting.

Various classes were actively started, such as science, geography, philosophy, and physical education. Inheriting the traditional curriculum, the Korean government divided and specialized in academic high schools for higher education and vocational high schools for training technicians.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university education and graduate education were gradually expanded. At this time, higher education had not yet become universal in all countries of the world. However, in some countries such as Korea and the US, the rate of students enteri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as increased rapidly.

In Korea, even before the free high school education system was implemented, almost all teenagers had already graduated from high school. Recently, more than 70% of students go to college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So, the development of school education is closely linked to the nation's economy.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heir age group are educated in newly established schools, with low educational expenses with government support. This process has a positive impact on technological progress and economic growth.

School-educated students become a key driving force of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This virtuous cycle was achieved thanks to the desire for education among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e dedication of teachers, and the support of philanthropists. Or, course, active government policy leadership, and support.

In this course, I will look into examine how school education has evolved in Korea in connection with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Korean economy. In the first week, I will look at the reality of Korean education. Then I will outline the formative process of Korean school education. Afterward, I will examine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education at each level by dividing it into early childhood and elementary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I will discuss teachers and education finance, which are the core frameworks of the education system for a week each. Afterward, I will talk about, women, private education, and education equalization, which are three main topics in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In the eleventh week, I will look at assessment tests and review educational performance. Finally, in the twelfth week, I will discuss education other than regular school education, that is, education at private schools.

So far, I have briefly outlined this course and course schedule. Next time, I will take a look at the current state of Korean education. Thank you.



1-2**Current State of Education in Korea 1**

Hello, everyone! Last time, I talked about school edu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I explained the purpose, the main point, and the subject of this course. This time, I will take a look at the current state of Korean education. To be specific, I will look into how Korea's kindergarten, elementary school, and secondary school education show results in global education.

Most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complet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recent enrollment rate is 98% for elementary school, 97% for middle school, and 92% for high school. The enrollment rate is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ed at each school divided by the school-age population. The actual age of students attending school is often higher or lower than the school-age population. In this case, the enrollment rate may be higher than 100% as people other than the school-age population are also included in the numerator.

Statistical results change depending on what time of year the statistics are compiled. The size of the school-age population remains the same, but the number of enrolled students may fluctuate due to reasons such as suspension of study or emigration. So a little error is not significant. However, the high school enrollment rate is lower than the elementary or middle school enrollment rate.

Korea's elementary school enrollment rate has already reached a level close to 100% since before the 1960s.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enrollment rates have increased rapidly since the 1960s with a gap of about ten years. The middle school enrollment rate reaches nearly 100% in the late 1970s and the high school enrollment rate reached it in the 199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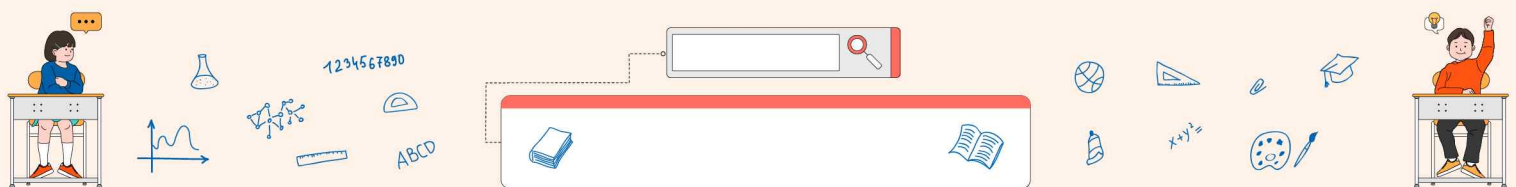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Most students who ente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Korea succeed in graduating.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are currently compulsory education, and all students graduate and go on to upper schools. The dropout rate is less than 1%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nd the high school dropout rate is around 1%, which is very low.

Most high school graduates also go on to higher education courses such as institutions as vocational colleges and universities. The college entrance rate of high school graduates each year is over 70%. The proportion of students who complete higher education in the same cohort is higher when retakers and students who enter late after employment are taken into account.

Korea's educational achievements are also evident when looking at the level of education completion of the adult population. according to the education index data compiled by the OECD, among the population aged 25 to 64, middle school graduates or less are 11%, and high school graduates are 39%. On the other hand, nearly half have completed higher education at the junior college level or more.

The share of the population with secondary school graduates or less is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r the EU22 average. The population share of high school graduates is also lower than that of the OECD and EU22 as well as the US and Japan. The share of the population that has completed higher education is as high as that of the US and Japan. Of course, it is not easy to simply compare school enrollment rates across countries, as education systems and environments vary greatly from country to country.



But Korea wa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From 1950 to 1953, South Korea experienced the devastating Korean War. Nonetheless, Korea has a world-class level of education completion among the adult population. This proves the fact that Korean education has achieved rapid quantitative growth.

Looking at the level of education completion among the young population from the ages of 25 to 34, you can see the current performance of Korea's education more clearly. Korea has undergone rapid and huge change and growth since the Korean War in the late 20th century. That is why Korea has such large differences in educational performance by age group.

As of 2020, when looking only at the age group of 25 to 34, the proportion of young people who have completed higher education in a junior college or more is now reaching about 70%. Considering that the entrance rate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is over 70%, this figure is predicted to rise even higher in the future.

One of the key indicators of the quality of school education is how much it spends per student on education. Korea has the world's highest level of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The cost of public education is the sum of all expenditures for formal education, including those of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his also includes tuition fees from parents. According to the education index data prepared by the OECD, the level of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 in Korea in 2018 reached 12,535 dollars for elementary education and 14,978 dollars for secondary education. The OECD average is \$9,550 for primary education and \$11,192 for secondary education. The EU22 average is at a similar level to the EU22. All of them are not up to the Korean level.



Of course, some countries spend more on public education per student than Korea. The US spends more on public education per student in elementary school than Korea. And the nation spends slightly less on public education per student in secondary education than Korea. The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 in Japan is close to the OECD average. Further, the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 is lower than Korea's expenditure.

Korea has a slightly lower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 in higher education than other countries. The expenditure is 11,290 dollars as of 2018. This amount is below the OECD average of 17,065 dollars and the EU22 average of 16,986 dollars. It is less than the \$19,309 of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 in higher education in the US and the \$34,036 of the expenditure in Japan.

Some experts use this figure to argue that the level of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in Korea is behind that of other countries. Others say that the level of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in Korea is insufficient, with the fact that the public education cost per student in higher education is lower than that of primary or secondary education.

However, you need to be careful when reading this statistic. These figures are not easily comparable across countries. Unlik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higher education has a very different ratio of students to the school-age population.

Korea's higher education completion rate is among the highest in the world. If more students are accommodated and educated in the same facilities and educational environment, the education cost per student can be reduced. Therefore, the level of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needs to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degree of gener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and whether it is for the elite.



We also need to take a careful look at how the public education expenditures included in these statistics are actually calculated. This is because the cost of higher education includes not only the cost of education itself but also the cos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Korea ranks among the world's highest in the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conducted by the OECD. PISA evaluates 15-year-old students in regular schools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with tests in reading, math, and science learning outcomes. Korea's average test scores for the PISA are ranked at the top of all participating countries, including OECD countries.

In the PISA conducted in 2018, among OECD member countries, Korea ranked 2nd to 7th in reading, 1st to 4th in math, and 3rd to 5th in science. Even including all participating countries, Korea ranked 6th to 11th in reading, 5th to 9th in math, and 6th to 10th in science. These reflect the results for a total of 79 participating countries. In the previous exams conducted every three years, Korea always ranked high with high average scores.

Recruitment of excellent teachers is important to provide quality education. Appropriate compensation is essential to selecting excellent teachers. Higher salaries for teachers are more likely to attract better teachers. The education indicators prepared by the OECD show that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 salaries in Korea are good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f you look at the annual statutory salary amount for teachers with 15 years of experience as of 2020, In South Korea, it was 59,103 dollars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59,165 dollars for middle school teachers, and 65,248 dollars for high school teachers. This is above the OECD average and the EU22 average. Although the statutory salary of teachers in Korea is lower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it is higher than that of Japan.



In terms of percentage conversion, the annual salary of Korean teachers with 15 years of experience is about 23% higher for elementary school and about 12.5% higher for high school than the OECD average. These statistics show that the status of teachers in the Korean labor market may be higher than in other countries. In Korea, compared to other countries, more qualified or productive people are more likely to become teachers.

So far, we have looked at the current state of Korean education with several indicators that show input and performance. In Korea, all children and adolescents complet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more than 70% of them complete higher education.

Reading, math, and science test scores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re also among the highest in the world. These outstanding achievements have been made based on active investments in formal schooling. The level of investment in formal school education in Korea is very high. Teacher salaries are also high.

Then, behind these positive points, what problems does Korean education have? Many people have various concerns about education in Korea. Next time I'll look at these concerns. Thank you.



1-3

Current State of Education in Korea 2

Hello, everyone! Last time, we looked at the current state of Korean education with several indicators that show input and performance.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Korean education is performing well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However, it is difficult to just say that Korean education is excellent in all aspects. Korea's regular school education has many problems and faces several reform tasks. This time, we will focus on the problems of Korean education, which is showing excellent results in various indicators.

What problems and challenges does Korean education have?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s the burden of entrance exams and the high cost of private education. Some point out that children and teenagers spend too much time studying and that Korean education is biased toward subjects for entrance exam.

in terms of input and performance indicators reflect the widening gap in education between regions, schools, and individuals of different socioeconomic backgrounds. You can often hear the opinion that active support is needed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multicultural students. I will go through these issues one by one.

The first problem is private education. In Korea, education is divided into public education and private education. Regular school education is public education. Private education is a collective term for non-formal tutoring activities that take place outside of regular school education. It includes night classes, cram schooling, private lessons, and after-school classes.



The terms “public education” and “private education” in Korea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English terms “public education” and “private education,” which divide schools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entity. In English, public education means education in public school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Private education usually refers to education conducted at private school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private sector.

To be specific, there is a strict distinc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schools.

Public education in Korea means regular school education, so it includes not only education in national and public schools but also education in private schools. Private secondary schools in Korea are strictly controlled in their operations as they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follow the standard curriculum set by the government.

Therefore, the term public education in Korea is close to formal education, which includes both public education and private education in English. Therefore, when the term public education in Korea is expressed in English, it should be understood as cram schooling, which means an entrance examination institute, and private tutoring, which means private supplementary classes.

Korea has a very high participation rate in private education. About three-quarters of all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receive private education. This ratio is the largest at 80% or more in elementary school and decreases slightly as students move up to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While classes for low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 end around 2:00 p.m., working couples come home from work in the evening. Therefore, in many cases, such students should attend private classes such as after-school programs, Taekwondo classes, piano classes, and art classes.



Of course, there are many private classes and private tutoring to supplement or pre-learn school subjects such as math and English. In this regard, even in high schools, the participation rate in cram schooling and private tutoring is still at 64.6%. The average number of hours of participation in private classes per week is six to seven hours, and the average monthly cost per student is close to 500,000 won. The average cost per student in school is 400,000 won per month for elementary school, 535,000 won per month for middle school, and 649,000 won per month for high school. It's not a small amount. In Korea, the burden of such expenses is considerable, and the level of private education varies depending on the family environment and household income. These differences may in turn lead to differences in educational outcomes. However, the problem of private education in Korean education does not simply lie in the burden of cost. Most students in the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participate in private education to learn some subjects such as math, English, Korean, and science to improve test scores.

Instead of supplementary education for school education, they often start private education as a prerequisite learning course to learn what they will learn at school.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in 2011 by a Korean educational organization, 76%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83%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69% of high school students are doing prerequisite learning on m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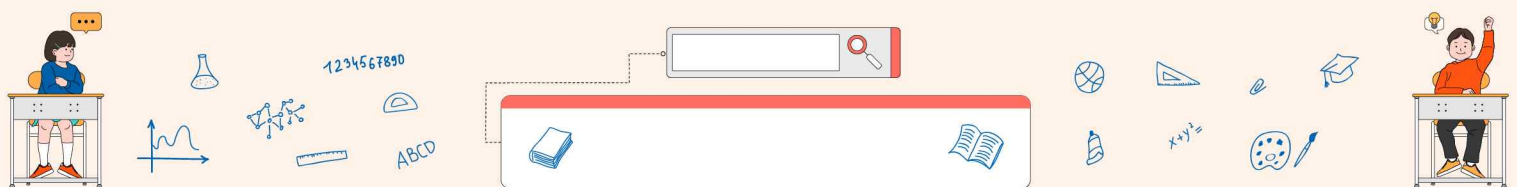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It means that students have already learned what they would learn at school a few years ago at private classes, and they learn what they will learn at school next year in advance at private classes. Well, then I have one question. Would the educational outcomes of students who have already studied what they will learn in school be better?



If you look at the data on test scores, it is not quite like that. Since 2011, the ratio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do not meet the basic national education achievement level of math subject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Since 2020, the ratio of students who have not met basic mathematics skills has exceeded 10% in both middle and high schools. Of course, the ratio of prerequisite learning and the percentage of students who do not have basic academic skills are not directly related to each other. As the private education market has grown and participation in private education has increased, the amount of time and money invested by Korean children in some subjects has increased. But, I wonder if the educational performance has improved that much.

Students have limited time and resources. If students spend more time studying math and English, they should spend less time on reading, physical education, leisure activities, and sleeping. If they spend more time going to private classes or watching online lectures, they need to spend less time hanging out with their peers. Private education does not serve as a path for educating something new that is not taught in schools but merely provides prerequisite learning, repeats some subjects, and supplements some subjects of regular school education. Then I think about whether private education is a desirable form of education is questionable.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closely evaluate the actual performance of private education and whether the investment in private education is efficient and effective.

The results of the reading proficiency test of the OECD PISA also suggest important implications. In the 2018 PISA of Korean students, the average score in the reading section was 514, which was high.



This is a high scor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However, for questions measuring the ability to discriminate between facts and opinions,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was low at 25.6%. This score is much low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It seems that there is a need for sober judgment and evaluation of how Korean students are performing in all educational experiences, including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Concerns are also growing about young people dropping out of school. Sinc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re now part of the compulsory education in Korea, there is no great concern about students dropping out of these schools. High school education in Korea is not compulsory education. The high school dropout rate steadily decreased until 2015 but has shown a slight increase since 2015. The percentage itself is around 1%, which is not large. However, we need to be alert to this growing trend.

In particular, the dropout rate is highest among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The dropout rate among second-year high school students is also high. Students drop out of school for a variety of reasons. We need to keep watching to see if students drop out of school for socially undesirable reasons and this creates other social problems.

There is also great concern about the widening educational gap in Korean society. Educational gaps can arise from differences in educational conditions between regions. These may result from differences in family background or parental characteristics. A recent study clearly shows that children of parents in higher-income quintiles are more likely to attend four-year colleges, and those in lower-income quintiles are less likely to attend there. Parents with low incomes have no choice but to invest less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than parents with high incomes, which can lead to widening educational gaps.

You may find this issue in test scores as well. Looking at the scores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a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 children from high-income households are more likely to score higher on the test.



Conversely, children from low-income households have a relatively higher proportion of children with lower grades on the test. If you consider that the ratio of students taking the test may vary depending on their parent's income, the difference in educational performance by income may be even more severe. We need to check whether these educational gaps between individuals, regions, and schools actually exist and are widening. If so, how to respond to this educational gap is one of the important challenges facing Korean education. There is also great concern that the educational gap in Korea is widening after the COVID-19 pandemic.

Another challenge for Korean education is the growing number of multicultural students. Students who have both or one of their parents are foreign students are usually referred to as multicultural student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student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Korea is rapidly increasing. The number of multicultural students, which was 46,954 in 2012, more than tripled to 160,056 in 2021. The ratio of multicultural students among all students is 3% as of 2021. The majority of multicultural students were born in Korea and most are children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However, in recent years, the proportion of students emigrating from overseas has increased. One of the challenges facing Korean education is to improve the environment and provide appropriate support so that multicultural students can enjoy regular education opportunities equally with other students.

So far, I have looked at the problems or challenges facing Korean education. I looked at the problems arising from private education, the recent increase in students dropping out of school, the widening educational gaps between individuals and regions,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multicultural students. Next time, I will take a close look at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in Korea. Thank you.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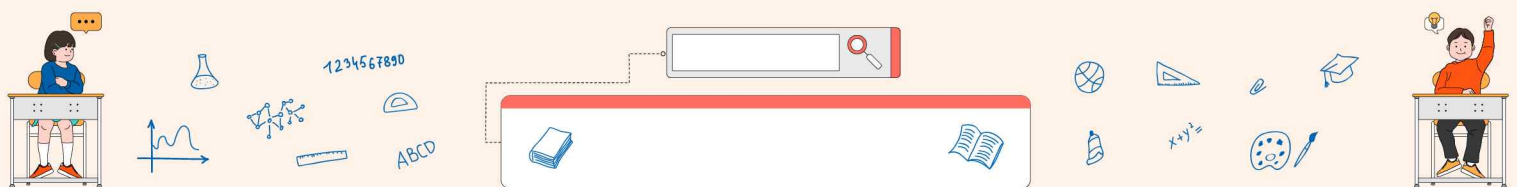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Korean Education System 1

Hello, everyone! Last time, I looked at the problems or challenges facing Korean education. This time, I will explain the Korean education system from kindergarten through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In particular, I will look at how Korean education has become its current state throughout Korean history.

Korea has an education system that consist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lementary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Children aged 3 to 6 have a perio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Representative institution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include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Students aged 7 to 12 have a primary education period of 6 years, and they are educated in elementary school. Primary schools are mostly public primary schools, but there are also some national and private primary schools.

National and public elementary schools provide free education, but in the case of private elementary schools, parents must pay tuition and other expenses without government support. Students between the ages of 13 and 15 have a three-year lower secondary education period, and they are educated in middle schools. Korea implements compulsory education from elementary school to middle school as free education.

Most students go on to high school after graduating from middle school. High school is responsible for three years of upper secondary education for students between the ages of 16 and 18.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in Korea are not only public but also private in many cases. However, private middle and high schools are operated with the same curriculum as national and public middle and high schools and are conducted by the regular education system. The government also pays for the labor cost of teachers in private middle and high schools.



Middle school education is equally free of charge regardless of whether it is public or private, and teachers are usually randomly assigned to which school they go to. High school education also works like that. High school education in Korea is not compulsory, but it has been operated as a free education since 2021.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Korea is a mixture of education and childcare. Infant care may be provided by the parents themselves, by other family members such as grandparents, or by hired caregivers at home. You can also use facilities outside the home, but the representative childcare institution in Korea is a daycare center. Daycare centers include public daycare centers established in the community and private daycare centers run by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hey also include workplace daycare center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businesses for the children of their employees, so they are operated in various forms.

Different childcare centers have different care needs. Some daycare centers provide care for infants as young as several months after birth. Other daycare centers care for children up to six years of age. In Korea, daycare centers are institutionally classified as childcare institutions, not educational institutions. Recently, however, the government is attempting a policy to integrate child 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nto one and to convert childcare institutions into kindergartens.

Korea's representative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is a kindergarten. Kindergarten is an educational institution for young children. Korea's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defines infants as children between the age of 3 and before entering elementary school. So, children can attend kindergarten from the age of three. Based on the calendar year, children can attend Kindergarten beginning with their 4th birthday.



Thus, children aged 4, 5, and 6 attend kindergarten. However, kindergarten is not compulsory education. So children don't have to go to kindergarten from the age of 4. For example, a child may be cared for at a daycare center or at home at the age of 4, and attend kindergarten at the age of 5 or 6.

Some children do not go to kindergarten and only have childcare at home, or other children continue to attend daycare centers until the age of 6. In some cases, children attend full-day English classes called English kindergartens or play schools, which are private institutions that do not correspond to kindergartens. So, based on school age, the kindergarten enrollment rate is about 50%. However, most of the other half of the children are enrolled in daycare centers or private institutions.

Since 2012, Nuri Curriculum, an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 has been operating in Korea. This program offers a common curriculum for three yea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it is designed to secure the minimum amount of education regardl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or childcare institutions.

Therefore, public kindergartens, private kindergartens, daycare centers, etc. are subsidized from the government's budget for operation support expenses for the Nuri program and after-school activity expenses. In other words,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in Korea are basically kindergartens, but daycare centers also provide official early childhood education supported by the government budge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institutions are different because kindergarten focuse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daycare center focuses on childcare. However, since the two institutions have one thing in common in that they operate the same Nuri Curriculum, the government has been steadily attempting to integrate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As I mentioned earlier, Korea is now pursuing the direction of integrating childcare into early childhood education through kindergarten.



In Korea, children enter elementary school the year after they turn six years old. Therefore, elementary school education is conducted for six years for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7 and 12. However, since first-yea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ttend the first-year elementary school course in the year their 7th birthday falls, they are often six years old as of the date of enrollment. That's why some say the elementary school age is from 6 to 11 years old. On the other hand, in the past, when a child was 6 years old, he or she could enter elementary school.

The new school year in Korea starts on March 1st of every year. So, children born in January or February went to elementary school with children born from March to December of the previous year. Such children were called people born early in the year.

However, since 2003, the government has adopted the way children enter elementary school in the year following the year they turn six years old. So, children born in the same calendar year are now attending school in the same grade. However, there is an early entrance system, so it is still possible to enter school one year earlier.

The elementary education system in Korea has been implemented for a long time, but the system was reorganized into the current form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er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elementary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Korean students attended were called general schools. At that time, there were separate elementary schools called grade schools only for Japanese students. Separate education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continu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Meanwhile, the name general school has been changed to the name grade school, and it was changed into the name primary school. The name primary school has been used even after the liberation, but it was changed to the name elementary school in 1996.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to the present, the age of admission and the period of education have also changed several times.



In Korea, most are public elementary schools, and a few are national and private elementary schools. Primary education is compulsory and free, but tuition for private elementary schools is not subsidized. In the past, there was a civic school established for those who did not receive elementary education. As elementary education became universal, civic schools no longer exist.

Middle schools for the education of youth aged 13, 14, and 15 appeared in earnest after liberation. Until the Japanese colonial era, secondary education was not divided into lower and upper parts. So, after graduating from general schools, students entered advanced general schools for secondary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was also carried out as a separate education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The name of the secondary education institution for Japanese was middle school.

In 1938, the name advanced general school was changed to the name middle school.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period, it was reorganized into an elementary middle school, which is a lower secondary education institution, and an advanced middle school, which is an upper secondary education instituti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elementary middle schools were changed to four-year middle schools, and advanced middle schools were transformed into three-year high schools. After the Korean war, three-year middle schools were changed to three-year middle schools, and it continues to this day.

Middle schools in Korea initially selected students through examinations. As the number of students wishing to go on to higher education increased, the competition for admission intensified. There was also a ranking among schools. The middle school entrance exam was abolished in 1969. Students wishing to go on to higher education were assigned to schools near their residences through a lottery.



Compulsory middle school education began in 1985 in insular and remote areas. In 1994, compulsory middle school education was expanded to towns and villages and it gradually expanded from 2002. And from 2005, it was implemented throughout Korea.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compulsory middle school education system was actually a process of expanding free education. Even before the system was implemented, teenagers in their education age group have already entered middle school.

About 20% of middle schools in Korea are private middle schools. Education in private middle schools and public middle schools is the same according to the national curriculum. Private middle schools provide free education, just like public middle schools. In fact, students cannot choose between attending a public middle school or a private middle school. Students are placed in schools based on distance from their residence and by lottery.

In addition to general middle schools, since 2013, open secondary school, a remote education institution, has been established and is in operation. Like civic schools in the elementary curriculum, there were also civic schools for those who did not attend middle school. Most of them have disappeared as middle school education has spread generally, and now very few remain.

So far, this course has provided an overview of the Korean education system, cover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elementary education, and early secondary education. Next time, I will look at upper secondary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Thank you.



1-5**Korean Education System 2**

Hello, everyone. Last time, we took an overview of the Korean education system and looked at early childhood education, elementary education, and lower secondary education. This time, I will continue to look at the Korean education system. From high school, which corresponds to upper secondary education, to higher education thereafter, I will look at how the Korean education system has changed in Korean history.

High schools in Korea are upper 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students aged 16, 17, and 18 years old. As I mentioned last time, lower secondary education and upper secondary education were divided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perio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three-year high schools were implemented. High schools were divided into academic high schools for university entrance and vocational high schools for professional education such as technology and employment. Vocational high schools were also called technical high schools.

From 2011, Korean high schools are divided into four types: general high schools, specialized high schools, special-purposed high schools, and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General high schools are formerly academic high schools, where general humanities education is provided for university entrance. Specialized high schools include existing vocational and technical high schools and high schools specialized in alternative education. A special-purposed high school is a high school for the purpose of specialized education in a special field. This includes science high schools,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international high schools, arts high schools,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s and meister high schools. Autonomous high schools include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s and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and were created to expand school unit aut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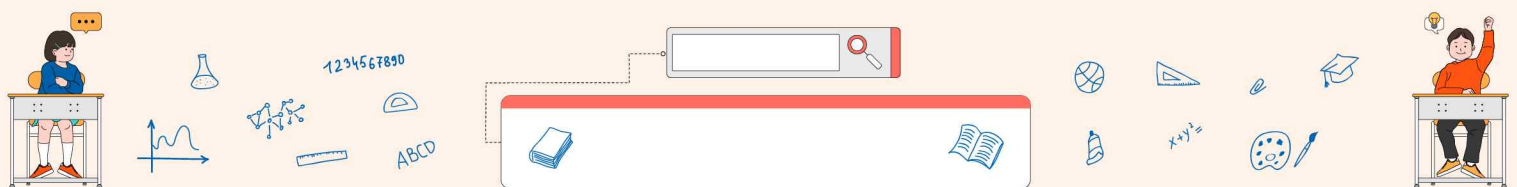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In the past, secondary education opportunities were quite limited. So, for a while after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students could enter secondary education institutions only through fierce competition. Students applied for each school and were selected through an exam, and there was a rank among schools. There were so-called prestigious middle schools and prestigious high schools. Competition has become fierce for students to enter prestigious middle schools and prestigious high schools.

High school entrance examinations were initially conducted on a school-by-school screening. However, in 1974, the policy on the equalization of high schools was implemented. After selecting the entire quota through a unified entrance examination and physical fitness test, students were assigned schools by lottery and school district. Since then, as the school-age population has decreased and the number of applicants has decreased compared to the high school entrance quota, this selection method has become obsolete. Beginning with Seoul in 1998, the high school selection test was gradually abolished. The unified high school entrance examination has disappeared throughout the country since 2017.

High schools now select students in a variety of ways based on their middle school grade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Many students go on to regular high schools assigned by the local superintendent.

Private high schools account for about 40% of Korean high schools. Like middle schools, high schools, whether public or private, provide the same educa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curriculum. Except for some separately-applied schools, students enter high school according to local placement rules.



High school education is not compulsory, but in fact, almost all students in their high school education age go to high school. High schools in Korea have long collected tuition from students. They subsidized tuition for some low-income students. From 2021, high school free education has been conducted in front.

In addition to high schools, there are not many educational institutions, but some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responsible for upper-secondary education. As a remote education institution, an open high school is operated.

In the case of civic school for upper secondary education, there was an advanced technology school system, which is a school that corresponds to civic schools for elementary education and lower secondary education. It's nominal now. Those who have not graduated from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can receive academic recognition through the school qualification exam.

Th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Korea include junior colleges,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University is a four-year high education institution that grants a bachelor's degree. Junior college is a two-year or three-year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awards an associate degree. Previously, there were Sungkyunkwan, the foremost educational institution in Ko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a law school established in 1895, and a medical school established in 1899. With the establishment of several vocational schools and Kyungseong Imperial Universi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current higher education system began to form. After liberation, the vocational schools, which have established during the colonial era, were promoted to a four-year university. Kyungseong Imperial University has merged with several vocational schools to become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ward, two-year junior colleges, vocational schools and three-year nursing schools have been established, and they were reorganized into a junior college in 1979.



A normal school that trains elementary school teachers have been operated as a three-year educational institution for high school courses for middle school graduates since the Japanese colonial era. It was promoted to a two-year education university in the 1960s and it was reorganized into a four-year university in the 1980s. The graduate school, which operates a master's degree program and a doctoral degree program, has gradually expanded. There is also a graduate school that runs only graduate schools. As of 2021, Korea has 154 junior colleges, 227 universities, and 45 graduate schools. There are 1,129 university-affiliated graduate school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higher education is that the proportion of private schools is high. More than 80% of the 190 general universities are private universities. In the case of junior colleges, only nine out of 134 are national and public junior colleges and 93% of 125 schools are private junior colleges.

In addition to junior colleges, education universities, general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there are various typ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Korea. There are th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established in 1972, 19 cyber universities, and two distant colleges. There are also some industrial colleges, technical universities, in-house universities, etc. There are also various schools for college courses, such as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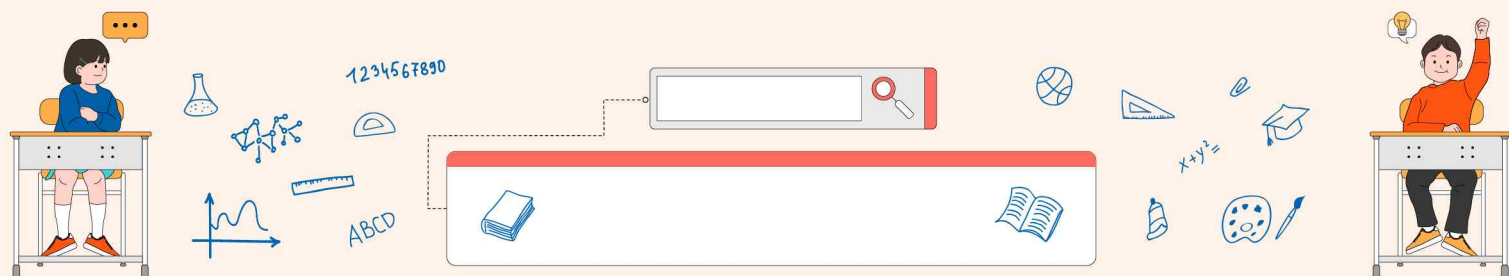
So far, I have looked at middle and high school courses and high education institutions in Korea. Let me wrap up the first section on "The Korean Economy and School Education." I have completed the introduction to Korean school education. In the next section, I will take a closer look at how Korean school education has been formed in Korean history. Thank you.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 1 周

韩国学校教育

1-1

学校教育与经济发展

各位学员，大家好！我是担任《韩国经济和学校教育》讲座的高鲜。很高兴通过这次讲座见到大家。在韩国经济和学校教育讲座中，我们将了解教育在韩国经济的发展过程中所扮演的角色。

很多人都说，虽然韩国是自然资源不足的国家，但凭借优秀的人力资本创造了快速经济增长的奇迹。学校教育起到了培养这些人力资本的主要作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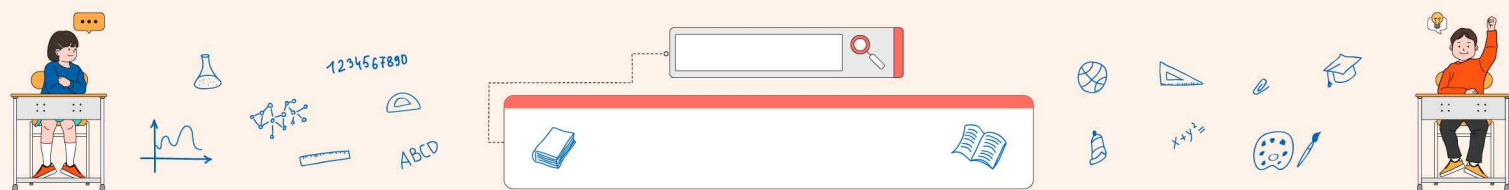
今后，在此讲座中，我们将了解韩国的学校教育是如何变化的，以及韩国经济的发展和学校教育的变化是如何相互配合的。另外，学校教育如何形成和扩大，在此过程中面临怎样的挑战，如何解决该挑战将成为讲座的主要主题。

会特别关注国家，即政府的作用。人力资本是经济增长的基础。因此，世界各国都在为振兴学校教育而努力。从熟悉写作、阅读、计算的小学教育到中等教育、高等教育，在教育的普遍扩大和发展过程中，政府一直发挥着主导作用。

该讲座将以韩国政府通过教育政策做出贡献的经验为中心，讲述经济增长源泉的人力资本积累过程。

首先让我们想一想什么是学校？学校是多人聚在一起接受教育的空间和制度。教育，即教和学习的活动可以以多种形式进行。教育不一定非得通过学校进行。但在历史上，不知从何时起，学校教育成为了代表性的正规教育形式。

学校教育，及将多名学生聚集在一个空间一起教育的方式，它从很久以前开始就延续了下来。但是近代以后，随着地区社会或政府开始提供公共教育，学校成为了正规教育的典型。这反映了以更多人为对象实施教育，将教育成果作为国家和经济整体成果的渴望。



地方或国家政府利用税收收入建设学校、聘请教师和办学。能负担得起的话，就招收所有同龄的学生，若条件不允许，就选拔学生。然而，随着正规学校教育的进一步发展，学校的大门越开越大，最终朝着为各个年龄段的儿童和青少年提供教育的方向发展。

正规学校教育的起点是初等教育。它首先召集6到7岁的孩子，教他们读书、写字和数数。很久以前，有很多人不会读写。因为没有足够的机会学习。但当政府开办学校并教所有儿童阅读、写作和数数时，情况发生了变化。

在年轻人中，文盲率迅速下降。当大多数人都能读、写、算时，技术创新迅速传播并大大提高了生产力。始于工业革命的现代经济增长进一步加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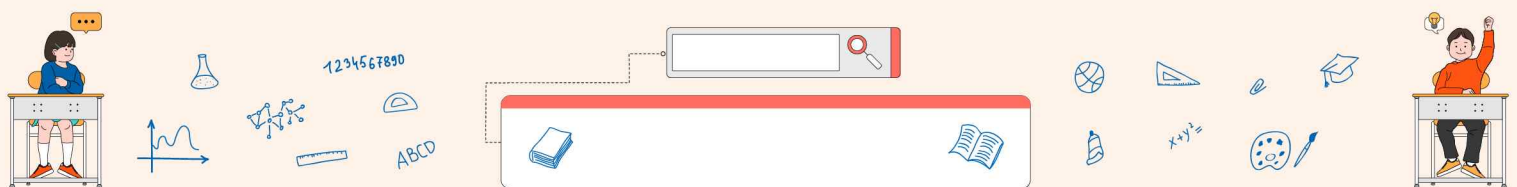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新技术的发展引发了工业革命。然而，只有在生产现场能够利用具有足够人力资本的劳动力时，这种技术创新才能带来快速的经济增长。因此，学校教育的普及和文盲人口比例的下降也是早期工业化的先决条件。

近代以来的经济增长和技术进步正在引导更多的人寻求在简单的阅读、写作和算术之外进一步学习的机会。以前以精英为中心的教育机构的高中首先转变为公共教育机构。更多的儿童和青少年接受了深化的写作、阅读和数学教学。

科学与地理、哲学与体育也全面展开。发展了继承传统课程并提供与高等教育挂钩的教育的人文系高中（中国的普高），以及通过教授技术和专业知识培养专家和技术人员并与就业挂钩的专业和职业高中。

二战结束后，大学教育和研究生教育逐渐扩大。高等教育尚未在世界所有国家普及。然而，在一些国家，如韩国和美国，学生进入高等教育的比例迅速增加。

在韩国，甚至在实行免费高中教育之前，几乎所有的青少年都已经高中毕业。超过70%的学生在高中毕业后继续上大学。



因此,学校教育的发展与经济的发展密切相关。建立前所未有的新学校,让所有儿童和青少年在达到一定年龄后上学接受教育,在政府支持下减轻教育费用负担的过程始终与技术进步和经济增长联系在一起。

由于许多人在学校接受教育和发展人力资本,它再次成为经济增长和发展的关键驱动力。在这个过程中,有儿童青少年和家长对教育的渴望,有教师的奉献,有慈善家的支持,有政府政策的积极引导和扶持。

今后,在此讲座中,我们将结合韩国经济的发展过程来展望学校教育是如何进化的。第一周让我们回顾一下韩国教育的现实。接下来将概述韩国学校教育形成过程。之后我们将把各级教育分为幼儿及小学教育、中等教育、高等教育,了解各级学校教育的形成和发展过程。

之后,我们将分别讨论构成教育系统核心框架的教师和财政,每个主体各讨论一周。之后我们会谈到女性、私教育和平均化,这是韩国经济发展过程中受到或值得关注的三个话题。

在第11周,我们将查看评估并审查教育成果。最后12周,我们将讨论小学、初中、高中和大学中正规学校教育以外的教育,即校外学校。

以上,向大家介绍了该讲座的主要内容及今后的进行计划。下一节课首先来看一下韩国教育的现状。谢谢大家!



1-2

韩国教育现状1

各位学员，大家好!上一节课我谈到了学校教育和经济发展。还说明了本课程的设计方式、重点内容以及涵盖的主题。这一节课，我们就来看看韩国教育的现状。特别是韩国的幼、中小学教育在世界范围内取得了什么样的成果。

韩国的大多数儿童和青少年都完成了小学和中学教育。据教育部统计，近期入学率小学98%，初中97%，高中92%。入学率是每个级别的入学学生人数除以学龄人口。上学学生的实际年龄往往高于或低于学龄人口。在这种情况下，入学率可能高于100%，因为分子中还包括学龄人口以外的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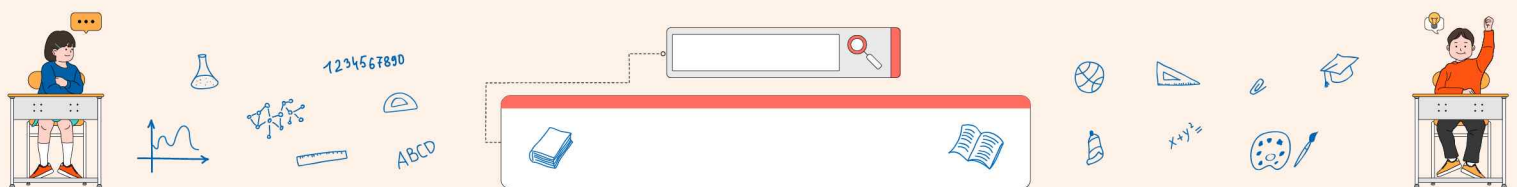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它还受到统计数据编制时间的影响。适龄人口规模保持不变，但在校学生人数可能因休学、移民等原因出现波动。所以一点点错误并不意味着什么。然而，高中入学率低于小学或初中入学率的原因似乎是有一些失学青年不上学。

韩国的小学入学率从1960年代以前就已经接近100%。中学和高中入学率从1960年代开始迅速增长，滞后约10年。中学在1970年代后期和高中在1990年代后期才达到接近100%就学的水平。

大多数进入韩国小学、初中和高中的学生都能顺利毕业。小学和中学目前是义务教育，所有学生毕业并升入高中。中小学辍学率不足1%，高中辍学率低至1%左右。

高校毕业生也大多进入大学等高等教育过程的上一级学校。每年高中毕业生的升学率超过70%。考虑到复读生和就业后较晚升学的学生，在同一队列中实际接受高等教育的人数比例较高。

从成年人口的教育完成水平来看，韩国的教育成就也很明显。根据经合组织（OECD）的教育指数数据，在25至64岁的人口中，11%的人受过中等或以下教育，39%的人拥有高中学历。另一方面，接近一半的人已经完成了两年制大学或更高学历的教育。



受过中等教育的人口比例低于OECD国家的平均水平或欧盟22国平均水平。高中毕业生的人口比例也低于OECD国家和欧盟22国，以及美国和日本。完成高等教育的人口比例与美国和日本一样高。当然，简单的国与国比较并不容易，各国的教育制度和环境差异很大。

但韩国是20世纪初世界上最贫穷的国家之一。从1950年到1953年，韩国经历了残酷的韩国战争。尽管如此，成年人口的教育完成水平世界一流的事实证明韩国教育实现了快速的数量增长。

从25至34岁年轻人口的教育完成水平来看，可以更清楚地了解韩国教育的当前成果。自20世纪后期，韩国战争以来韩国经历了快速的变化和发展。因此，不同年龄段的教育表现存在很大差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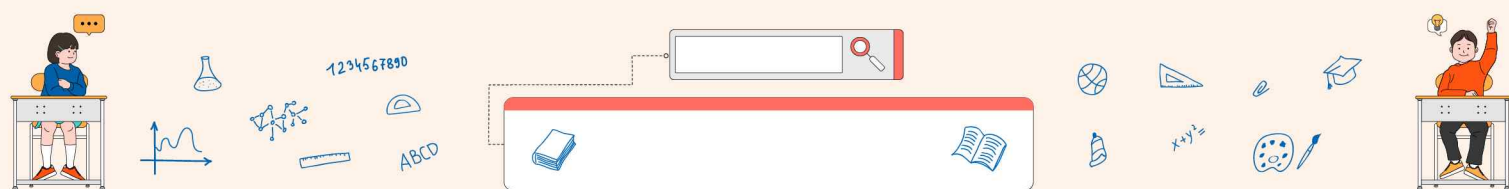
以2020年为基准，仅限于25岁到34岁的年龄层来看，接受2年制大学以上高等教育的青年比率现在接近70%。考虑到高中毕业后升学率超过70%，预计这个数值今后会更高。

学校教育质量的关键指标之一是对每个学生的支出。从每个学生的公共教育费来看，在小学教育和中等教育方面，韩国也呈现出世界最高水平。公共教育费是所有政府和私营部门用于正规教育的支出的总和，包括家长的学费。

事实上，比起公共教育费这一用语，用学校教育总支出来表达可能更准确。根据经合组织教育指标资料，2018年韩国学生人均公共教育费水平为小学教育12535美元，中等教育14978美元。OECD国家的平均小学教育人均9550美元，中等教育人均11192美元。欧盟22的平均水平也与此相似。没有达到韩国的水平。

当然，一些国家在每个学生的公共教育上的支出比韩国还多。就美国而言，初等教育中每名学生的公共教育支出高于韩国，而中等教育中每名学生的公共教育支出略低于韩国。就日本而言，它接近经合组织的平均水平，低于韩国每名学生的公共教育支出水平。

就高等教育而言，每名学生的公共教育支出略低于其他国家。2018年，韩国每名高等教育学生的公共教育支出为11290美元。这一数额低于经合组织平均水平17065美元和欧盟22国平均水平16986美元。它低于美国的人均高等教育公共支出19309美元和日本的34036美元。



有时，一些专家会用这个数字来论证韩国的高等教育投资水平落后于其他国家。一些人认为高等教育投资水平投资不足，理由是高等教育中每个学生的公共支出低于中小学教育。

但是，在解释此统计数据时需要注意。这些数字不容易在各国之间进行比较。与小学教育和中等教育不同，高等教育与学龄人口相比,学生比率大不相同。

韩国的高等教育完成率位居世界前列。虽然营造了同样的设施和教育环境，但如果接纳更多的学生进行教育，人均支出费用可能会减少。因此，特别是对高等教育投资水平进行研究时，有必要同时考虑高等教育普及程度还是为少数精英的教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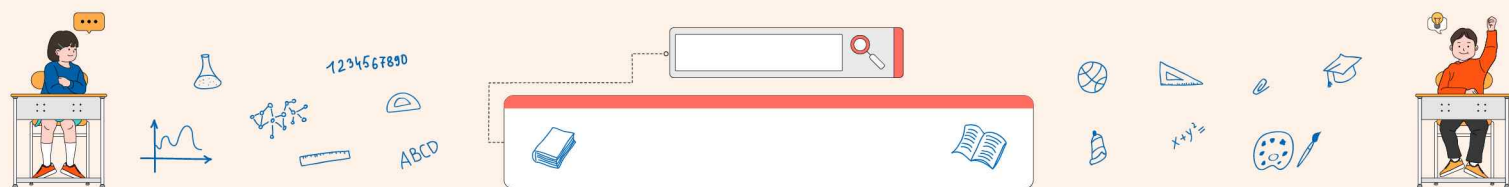
此外，有必要仔细查看本次统计所包含的公共教育支出明细的实际数额。因为高等教育的费用不仅包括单纯的教育费用，还包括研究开发相关费用。

韩国在OECD国际学生评估计划（PISA）中的表现水平也在世界上名列前茅。PISA，即国际学生评估计划，以阅读、数学和科学学习成果测试的形式衡量世界上许多国家正规学校的15岁学生。从考试成绩来看，韩国在阅读、数学和科学方面的平均成绩在包括OECD国家在内的所有参赛国家中名列前茅。

在2018年的测试中，在OECD国家的成员国中，阅读排名第2至第7，数学排名第1至4，科学排名第3至5。即使扩展到所有参赛国家，阅读排名也为第6至11位，数学排名第5至9位，科学排名为第6至第10位。共有79个参与国家的结果。在以往每三年一次的测试中，韩国一直以很高的平均分名列前茅。

聘请优秀教师是提供优质教育的重要条件。适当的薪酬是选拔优秀教师的必要条件。换句话说，教师的薪水越高，越有可能是更好的老师在教书。OECD国家的教育指标数据显示，与其他国家相比，韩国的中小学教师薪资较高。

截至2020年，韩国具有15年经验的教师年法定工资为小学教师59103美元，中学教师59165美元，高中教师65248美元。这高于OECD平均水平和欧盟22国平均水平。虽然低于美国教师的法定工资水平，但高于日本教师的法定工资水平。



从百分比来看，在韩国拥有15年经验的教师年薪比OECD国家的小学平均水平高出约23%，高中水平高出约12.5%。这些统计数据表明，韩国劳动力市场中教师的地位可能高于其他国家。那些更有资格或更有生产力的人更有可能成为教师。

以上，我们了解了反映韩国教育现状的投入和成果的几个指标。韩国教育展现了优秀的成果。所有儿童和青少年均完成中小学教育，其中70%以上完成高等教育。

小学和中学的阅读、数学和科学考试成绩也位居世界前列。这些杰出成就是在积极投资于正规学校教育的背景下取得的。韩国对正规学校教育的投资水平非常高。教师工资也很高。

那么这些积极因素背后的问题是什么？尽管如此，许多人对韩国的教育仍有各种顾虑。我们将在下一节课中考察这些方面。谢谢大家！



1-3

韩国教育现状2

各位学员，大家好！上一节课，我们观察了韩国教育的现状，以及反映投入和成果的几个指标。从中我们了解了韩国教育与世界其他国家相比取得了优秀的成果。

但是，也不能说韩国教育各方面都优秀。韩国正规学校教育存在诸多问题，也面临着多项改革任务。此次，我们将着眼于韩国教育在各项指标上都表现优异的另一面。

韩国教育面临哪些问题或挑战呢？高考负担、私教育费高是经常被指出的问题。人们经常指出，儿童和青少年花太多时间学习，教育偏向于高考科目。

在投入和成果指标方面，也发现了根据学生的社会经济背景或地区和学校之间扩大教育差距的问题。还有人担心辍学的青少年人数在增加，学校教育环境正在崩溃。人们也很容易听到这样的意见，即需要为越来越多的多元文化学生提供积极支持。让我们一一看一下。

第一个问题是私教育。在韩国，教育分为公立教育和私教育。正规学校教育是公共教育。课外补习是一种发生在正规学校教育之外的非正式补习活动的统称。私教育包括补习班、课外辅导和课后兴趣班。

韩国的公立教育和私教育完全不同于公立教育和私教育的区分，这是一种根据机构划分学校的英语表达方式。英语中的公立教育通常是指由政府或地方政府设立和经营的公立学校教育，而私教育通常是指由私营部门独立设立和经营的私立学校教育。

在某些方面，这种区分更有意义，因为政府通过税收支持集中在公立学校，而私立学校在财政方面没有政府支持而独立运作。

韩国的公立教育是正规的学校教育，因此不仅包括国立和公立学校的教育，还包括私立学校的教育。韩国的私立中学在运作方面受到高度控制，例如接受政府的财政支持并遵循政府制定的标准课程。



所以这可能有点令人困惑，但韩国的公立教育更接近正规教育，包括英语的公立教育和私教育。Privatetutoring，当用英语表达时，有时被称为补习班，因为它以入学考试为中心，而privatetutoring在私人补习班的意义上。

韩国的私教育参与率非常高。大约四分之三的小学、初中和高中学生正在接受私教育。这个比例在小学阶段最高可达80%以上，随着进入初中和高中阶段会有所下降。小学低年级的课程在下午2:00左右提前结束，从这段时间到工作父母下班回家的傍晚，对保育的需求相当大，因此放学后去兴趣班、跆拳道培训班、钢琴辅导班，美术辅导班等的情况较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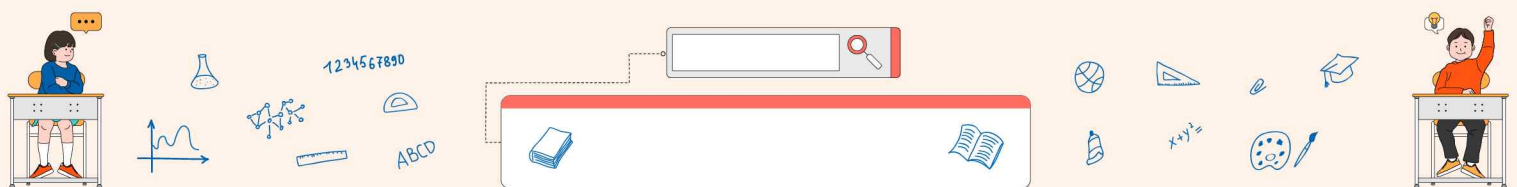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当然,为了补充数学、英语等学校课程或先行学习的补习班、课外辅导也很多。因此,高中课外辅导参与率仍然达到64.6%。每周参与时间平均为6-7小时,参与学生的人均每月课外辅导费接近50万韩元。从各级学校的人均平均来看,小学生每月40万韩元,初中生每月53万5千韩元,高中生每月64万9千韩元。这绝不是小数目。

课外辅导费用负担相当大，课外辅导水平因家庭环境和家庭收入而异，这些差异会导致教育成绩的差异。然而，私教育给韩国教育带来的问题，并非单纯的费用负担。小学、初中、高中高年级学生的私教大多是数学、英语、韩语、科学等学科教育的一部分，目的是提高考试成绩。

如果说刚开始是为了辅助学校教育而进行的补充学习，那么现在很多时候都是以提前学习学校要学的内容的先行学习开始。据名为“不用担心私教育的世界”的团体2011年实施的调查结果显示，76%的小学生、83%的中学生、69%的高中生正在进行数学先行学习。

也就是说，并不是在学校学习该年级要学的内容，而是在一两年或三年前在补习班学习，现在已经在补习班提前学习明年或两三年后在学校要学的内容。好，那么疑问就来了。如果这么多学生在校外提前学习要学的内容，教育成果会不会更好？

看考试成绩，未必如此。2011年以来，全国学业成绩中未达到数学基础水平的初中生和高中生比例稳步上升。2020年以来，初高中未达到数学基础的学生比例均超过10%。当然，先前学习的百分比和没有基本学术技能的学生的百分比彼此没有直接关系。



然而，随着私教育市场的壮大和私教育参与率的提高，韩国儿童青少年在数学、英语等部分学科上投入的时间和金钱有所增加，但教育成果是否有所改善还是个疑问。

学生的时间资源是有限的。随着学习数学和英语的时间增加，读书、体育、休闲活动和睡眠时间减少。去私立学院或看在线讲座的时间越多，与同龄人相处的时间就越少。

如果私教育不是一种教育学校没有教授的新事物的方式，而只是在先前学习、重复或补充部分正规学校教育的水平上，那么很自然地会质疑它是否是一种理想的教育形式教育。需要密切评估私教育的实际表现，以及私教育的投资是否高效、有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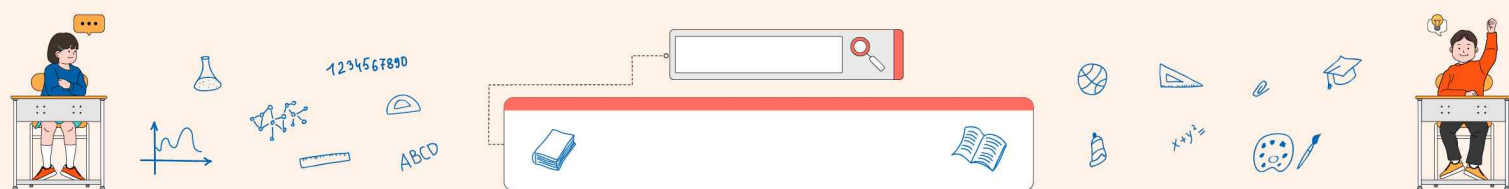
经合组织国际学生评估计划的阅读能力测试结果也具有重要意义。韩国学生在2018年PISA阅读部分的平均成绩为514分，处于高位。

与其他国家相比，这是一个很高的分数。然而，对于衡量区分事实和观点能力的问题，正确答案的百分比很低，只有25.6%。这比其他国家低得多。似乎有必要对韩国学生在包括公立和私教育在内的所有教育经历中的表现进行冷静的判断和评估。

对青少年辍学的担忧也越来越多。中小学现在是义务教育，所以不用担心学校停课。韩国的高中教育不是义务教育。高中辍学率在2015年之前稳步下降，但自2015年以来直到最近才略有上升。尽管如此，这个百分比还没有1%那么大。但对不断增长的趋势，有必要提高警惕。

特别是高一的辍学率最高。高二学生的辍学率也很高。中断的发生可能有多种原因。我们需要继续关注，看看学校停课是否因社会不良原因而增加，并引发其他问题。

韩国社会对教育差距扩大的担忧也很大。教育差距也可能发生在地区间教育条件的差异上。也可能源于家庭环境或父母的特性差异。从最近的研究资料来看，父母的收入等级越高，进入4年制大学的比率就越高，收入等级较低时不上大学的比率就越大。如果父母收入低，子女的教育投资水平就会减少，这可能会表现为教育差距的扩大。



在考试成绩上也发现了相似之处。从韩国学生高中毕业后为了升入大学而参加的高考高考成绩来看，高收入等级家庭子女的高考成绩上位等级的概率很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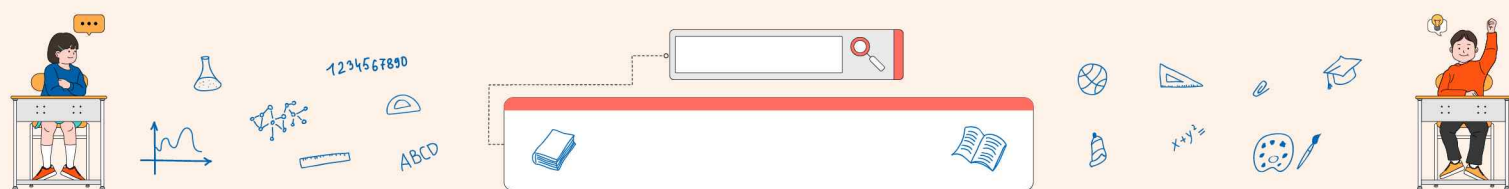
相反，低收入阶层家庭子女的高考成绩较低等级的比率相对更大。如果同时考虑到根据父母的收入，参加高考的比率会有所不同，那么根据收入，教育成果的差异可能会更大。

当今韩国教育面临的重要挑战之一是确定个人、地区和学校之间的教育差距是否存在，是否正在扩大，如果存在，如何解决这些差距。特别是，在新冠疫情爆发以后，韩国的教育差距正在扩大，这令人非常担忧。

韩国教育面临的另一个挑战是越来越多的多元文化学生。父母或父母一方为外国人而不是韩国人的学生通常被称为多元文化学生。韩国小学、初中和高中的多元文化学生人数正在迅速增加。多元文化学生的人数在2012年为46954人，到2021年增长了双倍多，达到160056人。截至2021年，所有学生中多元文化学生的比例为3%。大多数多元文化学生出生在韩国，并且有许多通过婚姻移民家庭的孩子。

然而，近年来，海外留学生的比例有所增加。韩国教育面临的挑战之一是改善环境并提供适当的支持，使多元文化学生能够充分享受与其他学生没有区别的正规教育的机会。

以上，我们已经了解了韩国教育面临的问题或挑战。我们谈到了私教育产生的问题，最近辍学学生人数增加，个人和地区之间教育差距扩大的问题，以及多元文化学生增加的挑战。下一次，我们就来看看韩国现在的教育制度。谢谢大家！



1-4

韩国教育制度1

各位学员,大家好!上一节课,我们了解了韩国教育面临的问题或挑战。今天,我将讲解从幼儿园到小学和中学的韩国教育制度。让我们看看它是在历史进程中以现在的形式建立起来的。

韩国拥有幼儿教育、小学教育、中等教育、高等教育的教育制度。满3周岁到6周岁是幼儿教育和保育期间。代表性的机构有幼儿园和托儿所。满7岁到12岁的6年间是小学教育期间,在小学进行教育。小学多为公立小学,也有部分国立小学和私立小学。

虽然在国立、公立小学,教育是免费的,但在私立小学,没有政府支持,家长必须支付学费和其他费用。13岁至15岁的三年是中等教育时期,教育发生在中学阶段。韩国的义务教育从小学到中学,而且是免费的。

但是大部分学生中学毕业后都升到高中。高中从满16岁到18岁,负责3年的后期中等教育。韩国的中学和高中不仅是国立、公立,私立的情况也很多。但是私立初高中也以与国立、公立初高中相同的教育课程运营,进入了正规教育体系。私立初高中的教师人工费也由政府负担。

就中学教育而言,无论是公立还是私立,都提供同样的免费教育,就读的学校类型通常以随机分配的形式确定。高中也差不多。韩国的高中不是义务教育,但从2021年开始实行免费教育。

韩国的幼儿教育是教育和保育混合的形式。幼儿的保育可以由父母亲自进行,也可以由祖父母等其他家庭或雇佣的保育人员在家中进行。也可以使用家庭外的设施,代表性的韩国保育机构是托儿所。

托儿所有多种形式,包括在社区设立的公立托儿所、个人或团体运营的民间托儿所、在事业单位为职员子女设立并运营的职场托儿所等。



托儿所的保育对象因托儿所而异。有些托儿所从出生数月后的0岁婴儿开始保育。有的托儿所甚至保育到学龄前6周岁的儿童。托儿所在韩国制度上没有被分类为教育机构,而是被分类为保育机构。但是最近正在试图将保育和幼儿教育合二为一,将保育机关转换为幼儿园的政策。

韩国代表性的幼儿教育机构是幼儿园。幼儿园是针对幼儿的教育机构。韩国的幼儿教育法规定幼儿是从满3周岁到小学入学前的儿童。所以幼儿园可以从满3岁以后开始上。如果以日历年度为基准,从满4周岁的生日的那年开始就可以上幼儿园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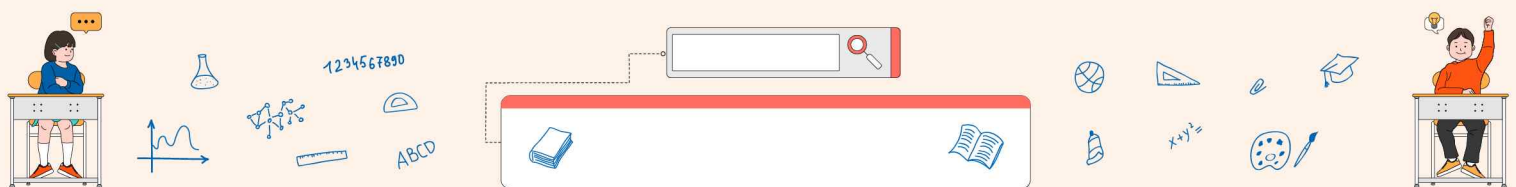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这就是为什么通常幼儿园的学龄被称为4周岁、5周岁、6周岁的原因。但是幼儿园不是义务教育。所以不一定要从满4岁开始上幼儿园。根据情况,满4岁上日托中心,或者家庭保育后满5岁或满6岁上幼儿园。

有些孩子不上幼儿园,只在家保育,或继续上日托中心,直到6岁。在某些情况下,孩子们会上全日制英语学校,称为游戏学校或英语幼儿园,这些都是与幼儿园不对应的私立机构。所以,按学龄计算,幼儿园入园率约为50%。然而,另一半儿童中的大多数都在日托中心或私立机构就读。

自2012年以来,幼儿教育项目大地课程(NuriCurriculum)一直在韩国运营。幼儿教育作为共同的三年制课程,该制度的设计使得无论幼儿教育机构或保育机构如何,都可以提供最低限度的教育。

因此,公立幼儿园、私立幼儿园、日托中心等均由政府预算补贴运营Nuri课程的运营支持和课后活动费用。换句话说,韩国的幼儿教育机构是幼儿园,但官方的幼儿教育是在作为保育机构的日托中心进行的,这些机构得到政府的预算支持。

两家机构的不同之处在于,幼儿园侧重于幼儿教育,而日托中心则侧重于儿童保育。但是,由于在运营相同的Nuri课程方面存在共同点,因此已经尝试整合作为保育机构的幼儿园和保育所。正如我之前提到的,现在在通过幼儿园将儿童保育纳入幼儿教育的方向上取得了进展。



在韩国，儿童在满6岁后的第二年进入小学。所以，我们通常所说的小学年龄是从7岁到12岁的6年。但是，如果说小学一年级的学生，他们在7岁生日所在的那一年就读一年级课程，因此到入学之日通常是6岁。所以，小学入学年龄经常写成6岁到11岁。另一方面，在过去，当孩子满6岁时，可以在同一年进入小学。

韩国的新学年从每年的3月1日开始。因此，1月或2月出生的孩子与前一年3月至12月出生的孩子一起上小学。这些一月和二月出生的人被称为“早生年”。

但是，从2003年开始，满6岁次年的小学入学方式发生了变化，现在同年出生的孩子属于同一年级上学。但是有提前入学制度，所以还是可以提早一年入学的。

韩国的初等教育由来已久，但在殖民地时期以现在的形式重组。在殖民时期，韩国学生就读的初等教育机构被称为普通学校。当时，有一个单独的小学作为日本学生的基础教育机构。

韩国人和日本人在殖民时期继续分开教育，但在中期，普通学校的名称改为小学，与日本学校相同，后来又改为国民小学。国民小学的名称解放后也一直沿用，1996年改为初等小学。从殖民时期到现在，入学年龄和受教育年限也发生了数次变化。

韩国的小学多为公立小学，也有少数国立和私立小学。初等教育是免费的义务教育，但私立小学的学费没有补贴。过去，有一种教育机构叫公民学校，是为那些没有接受过初等教育的人设立的。随着基础教育的普及，公民学校已不复存在。

解放后，13、14、15岁的中学正式出现。直到殖民时期，中等教育没有分为前期和后期。所以，小学毕业后，中等教育是在高中普通学校进行。殖民时期的中等教育也是韩国人和日本人分开进行教育，当时日本人的中等教育机构名称为中学。

1938年将高等普通学校改名为初中，类似于日本语学校。解放后，在美军统治政期间，改制为前期中等教育机关初级中学和后期中等教育机关高级中学。大韩民国政府成立后，初级中学改为四年制中学，高级中学改为三年制高中，韩国战争后中学再次改为3年制，一直延续至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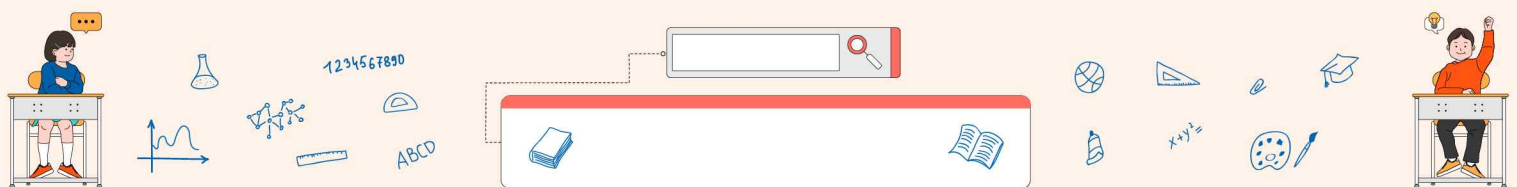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韩国的中学最初通过考试选拔学生。随着希望继续升学的青少年人数增加，考试竞争激烈，学校之间也出现了优劣排名。1969年，取消中考，希望入学的学生通过抽签的方式分配到住所附近的学校就读。

中学义务教育始于1985年的岛屿和偏远地区。1994年扩大到邑、面地区，2002年开始逐步扩大，2005年开始全面实施。中学义务教育制度的扩大过程其实是免费教育扩大过程。在义务教育制度实施之前,大部分学龄青少年已经上了中学。

韩国大约20%的中学是私立中学。根据国家课程，私立中学和公立中学的教育是一样的。私立中学与公立中学一样，提供免费教育。事实上，学生不能选择就读公立中学或私立中学。上哪所中学取决于与住所的距离和抽签决定。

除了普通中学外,从2013年开始设立并运营远程教育机构广播通信中学。像小学教育课程的公民学校一样,也有为没能上中学的人准备的高等公民学校,但是随着中学的普遍扩散,大部分都消失了,现在几乎不存在了。

以上，我们已经大致了解了韩国的教育制度，包括幼儿教育、初等教育和前期中等教育。下一节课，我们将关注高中教育和高等教育。谢谢大家！



1-5

韩国教育制度2

各位学员，大家好!上一节课，我们概述了韩国的教育制度，了解了幼儿教育、初等教育和前期中等教育。今天，我们将继续关注韩国的教育制度，延续上一节课的内容。让我们来看看从后期中等教育的高中教育到高等教育的制度，是如何通过历史的进程演变到现在的。

韩国的高中是面向16、17和18岁学生的后期的中等教育机构。上次讲到，在美军政期，前期中等教育和后期中等教育是分立的，韩国政府成立后，出现了三年制高中。一段时间，高中分为面向大学入学的人文高中和面向技术、就业等专业教育的职业高中。职业高中也称专业高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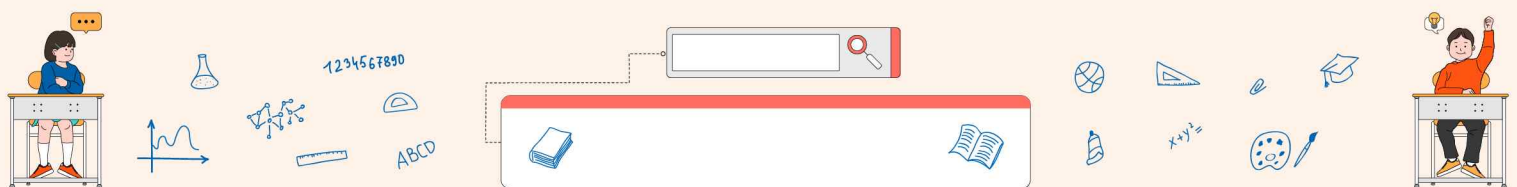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从2011年起分为普通高中、特性化高中、特殊目的高中、自律高中四种类型。普通高中过去大部分是人文系高中，提供进入大学的普通文科教育。特性化高中包括现有职业高中、专业高中和替代教育特性化高中。

特殊目的高中是以特殊领域的专业教育为目的的高中，包括科学高中、外语高中、国际高中、艺术高中、体育高中和称为迈斯特高中的针对性产业需求高中。自律高中包括自律公立高中和自律私立高中，是为扩大校本自律而设立的。

过去，中等教育机会非常有限。所以，从殖民时期到解放时期，有一段时间，只有通过激烈的竞争才能进入中等教育机构。这是按学校报名选拔的方式进行的，并且在学校之间划分排名。所谓的名牌中学、名牌高中就出现了，进入名牌中学、名牌高中的竞争愈演愈烈。

中考最初是以各学校的录取方式进行的。但是1974年实行高中平均化政策后，通过联合考试和体能测试选拔全部名额后，采用了按学区抽签分配学校的方式。此后，随着适龄人口减少，高中录取人数减少，这种选拔方式也就有名无实。从1998年首尔开始，高中选拔考试逐渐被取消。2017年以来，中考在全国所有地区都消失了。

现在高中以初中成绩和学生的个人特性等为标准,以多种方式选拔学生。很多学生升入地区教育监分配的普通高中。



韩国大约40%的高中是私立高中。与初中一样，高中无论是公立还是私立，都根据国家课程提供相同的教育。如果不是部分单独支援选拔的学校，上哪所学校取决于各地区的分配规则。

高中教育不是义务教育，但实际上，几乎所有高中适龄的人都会继续读高中。韩国的高中长期以来一直向学生收取学费。部分低收入家庭获得学费资助。从2021年开始全面实施高校免费教育。

除了高中以外，虽然规模不大，但各种教育机构都负责后期中等教育。现在还运营广播通信高中，是一所远程教育机构。

小学课程公民学校和初中课程高级公民学校相应的高中课程有高等技术学校制度。现在是有名无实。另外，小学、初中、高中未毕业者可通过资格考试制度认定其学历。

韩国的高等教育机构有代表性的大学、专科大学、研究生院。大学是四年制高等教育机构，授予学士学位。大专院校为两年制或三年制教学机构，授予专业学士学位。

以前也有朝鲜时代的成均馆、1895年成立的法官培养所、1899年成立的医学学校等，但殖民地时期设立专门学校和京城帝国大学后，正式形成了现在的高等教育体系。

解放后，殖民时期的专科大学升格为四年制大学，京城帝国大学与数所大学合并成为首尔国立大学。之后又开设了2年制初级大学、专科学校和3年制护士学校，并于1979年整合改组为专科大学。

培养小学教师的师范学校从殖民地开始以初中毕业生为对象，作为高中课程的3年制教育机构运营过。1960年代升格为2年制教育大学，1980年代再次改编为4年制大学。

大学毕业后，研究生院开办硕士研究生和博士学位课程也逐渐扩大，也出现了只运营研究生院的大学。截至2021年，韩国有154所专科大学、227所大学、45所研究生院大学在运营。大学附属研究生院也有1129所。



韩国高等教育的特点之一是私立学校比例高。在190所普通大学中,80%以上的156所是私立大学。以专科大学为例,在全体134所学校中,只有9所学校是国立公立学校,占93%的125所学校是私立专科大学。

除了大学、教育大学、专科大学、研究生院外,韩国还有各种类型的高等教育机构。有1972年成立的广播通信大学,还有19所网络大学和2所远程大学。虽然不多,但也有工业大学、技术大学、公司内部大学、专业大学、技能大学等。还有像韩国艺术综合学校等大学课程的各种学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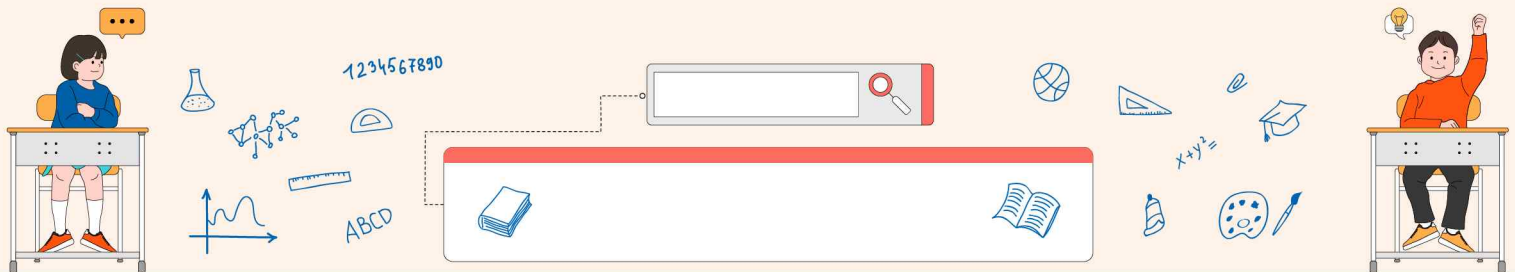
以上,我们已经了解了韩国的教育制度、初中和高中课程以及之后的高等教育机构。“韩国经济与学校教育”第一讲到此结束。对韩国学校教育的概述就讲到这里。在接下来的第二讲中,我们将仔细考察韩国学校教育的历史形成过程。谢谢大家!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01 역사 속에서 학교 교육이 발전해 온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0분

- 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초등교육의 보편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본격적인 경제성장이 시작되었다.
- ② 초등교육이 보편적으로 확산되면서 비문해 인구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 ③ 의무 무상교육 제도가 실시되고 나서야 학교 교육이 보편적으로 확대되었다.
- ④ 중등교육은 엘리트 중심 교육으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 보편적인 대중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정답 ③

해설 대부분의 경우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 제도는 보통 학교 교육이 충분히 확산되고 난 이후에 도입되었다.

02 다음 중 현재 한국 교육의 우수한 성과로 볼 수 없는 것은?

10분

- ①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
- ② 높은 1인당 고등교육비
- ③ 높은 중등학교 수학, 과학 평균성적
- ④ 높은 교원 급여 수준

정답 ②

해설 1인당 초중등교육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1인당 고등교육비는 그렇지 않다.



03 다음 중 한국 교육이 당면한 문제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0분

- ① 높은 사교육비 부담
- ② 지역간 계층간 교육 격차의 확대
- ③ 높은 고교 학업중단율
- ④ 기초학력수준 미달 학생의 증가 추세

정답 ③

해설 고교 학업중단율 자체는 상당히 작은 편이다. 다만, 최근 다소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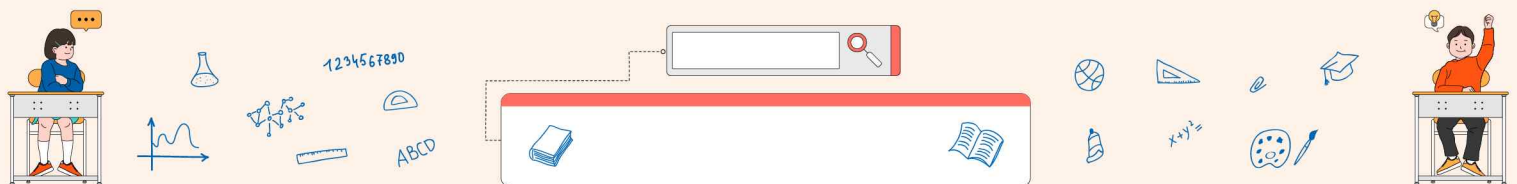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04 다음 중 한국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0분

- ① 한국의 유치원 취학률은 약 50% 수준이다.
- ② 한국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다.
- ③ 한국의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다.
- ④ 한국의 유아교육을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지원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한국의 유아교육은 유치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사설 학원 등에서도 이루어지므로 취학률은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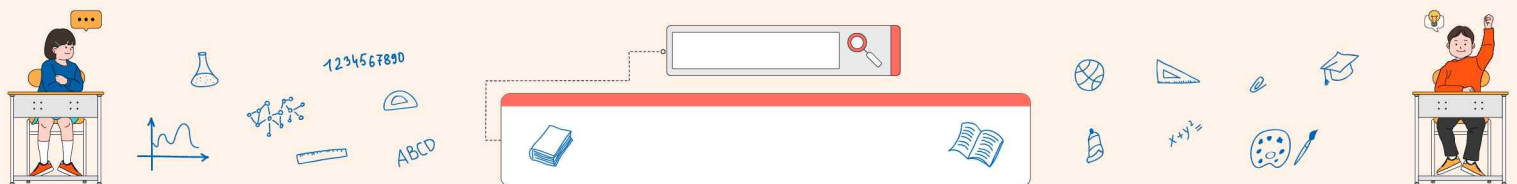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05 다음 중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0분

- ① 한국 고등교육은 사립학교 비중이 높다.
- ② 초등교원은 중등교육기관에서, 중등교원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양성한다.
- ③ 학부 과정 없이 대학원만을 운영하는 대학원대학이 있다.
- ④ 대학 수보다 대학 부설 대학원 수가 더 많다.

정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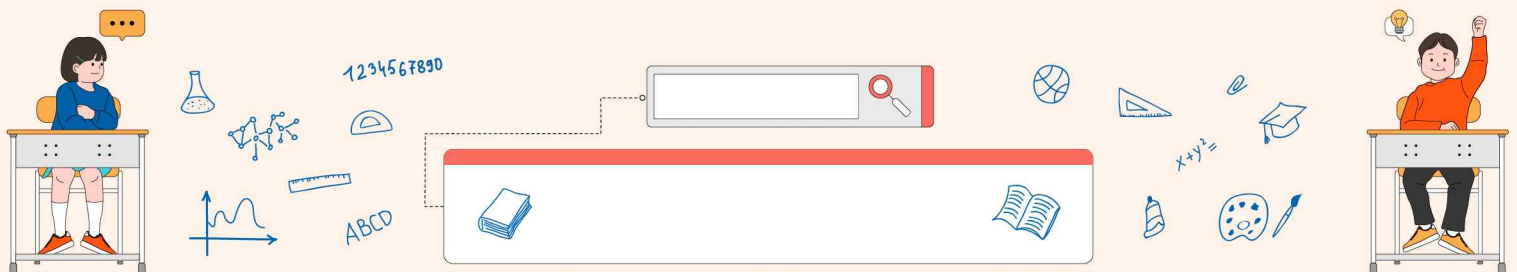
해설 과거 초등교원은 중등교육기관인 사범학교에서 양성했지만, 현재는 고등교육기관인 교육대학교 등에서 양성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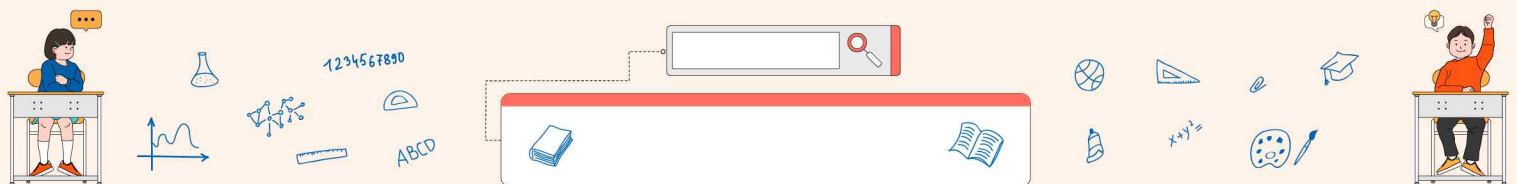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A4 한 장 정도 작성하면 됩니다.
- 다른 수강생이 남긴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답변으로 남겨도 토론 점수가 인정됩니다.

주제

학교 교육은 경제 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세요. 역사적 경험은 어떠한 과정을 보여주나요?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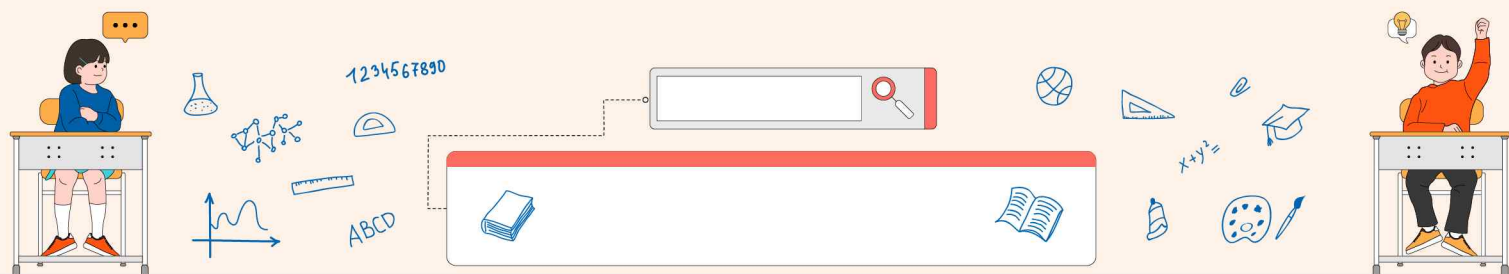
역사 속에서 학교 교육은 초등, 중등, 고등교육의 순서로 확대되어 왔고, 각 단계별로 경제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초등교육의 보편적인 확산은 문자해독 인구의 비율을 높이며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중등교육의 확대는 실업계 고교의 경우 특히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관련되었다. 인문계 고교 교육의 확대는 고등교육의 확대로 이어졌다. 고등교육의 확대는 급격한 기술진보를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의 기반이었다. 역사 속에서 각급 학교교육은 인적자본 축적을 이끌어내며 경제 성장의 밑바탕을 이루어 왔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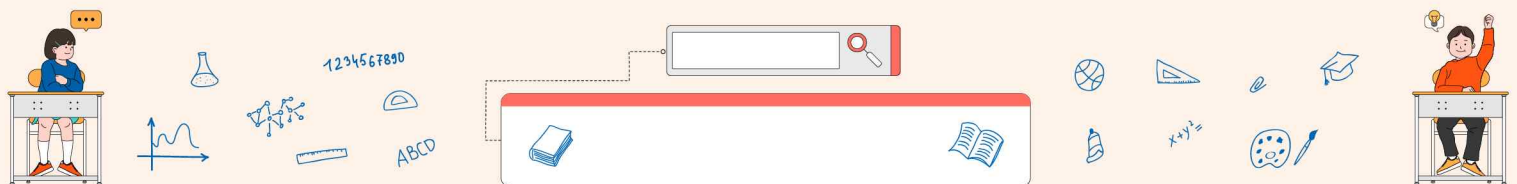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도서

-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1998. 교육50년사. 교육부.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대한민국 교육 40년. 한스미디어.
- 중앙대학교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문교사: 1945-1973. 중앙대학교출판국.
- 한국교육개발원. 1994.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 - 개화기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1997.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 - 일제시대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1998.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I) - 해방이후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Goldin, Claudia and Lawrence F. Katz. 2008. The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 The Belknap Press.
- Lindert, Peter H. 2004. Growing Publ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영상

- EBS Documentary (EBS 다큐). 교육대기획 10부작 학교란 무엇인가 1부, 학교란 무엇인가 1.

<https://youtu.be/jbJXZ7DSimg>

- KBS 역사저널 그날. 영상한국사 I 150 점차 과열되는 교육열과 교육 제도의 변화

<https://youtu.be/sdcECQWylKQ>

